

# 省(反省)

李鍾述

## <目次>

I. 省의 意味	V. 俗儒의 省
II. 省의 契機	VI. 省의 功效
III. 省의 方法	1. 反省과 推進力
1. 基本確立	2. 反省과 思考力
2. 形式的 方法	3. 反省과 主體性
3. 實質的 方法	4. 反省과 恕
IV. 聖賢의 省	

## I. 省의 意味

省은 禮器에 “禮不可不省”이라 하였고, 論語에 “子曰吾與回言終日 不違如愚 退而省其私 亦足以發 回也不愚.”라 하였고, 또 曲禮에 “昏定晨省”이라 하였고, 集韻에는 “審也”라 하고, 正字通에는 “明也”라고 하였다. 이때의 省字義는 어떤 對象事物을 詳審分明하게 觀察한다는 意味를 가지고 있고, 昏定晨省의 省만은 觀察하는 위에 看護管理한다는 內容을 添加하고 있는 것 같다. 論語에는 또 “子曰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라고 하였으며, 亦是 論語에 “曾子曰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라 하였으니, 여기서의 省은 自己自身の 一切를 反觀省察한다는 意味가 되겠다. 本文에서 筆者가 論하고자 하는 것은 後段에서 말한 反省에 對한 것이다. 따라서 위에 引擧한 省以外の 意味는 論究의 對象이 아니며, 特히 省察이라고 하면 一般的으로 存養省察의 動靜功夫를 意謂하는 것으로 連想하기도 쉬우나, 그러나 嚴密한 意味에서는 未發 已發의 心之體用 動靜을 存省하는 功夫인 通動靜一貫의 敬功夫에서 말하는 省察은 現行的인 속에서의 過去·現在·未來를 말하는 것이고, 反省은 現象化的인 我生을 觀察하는 過去爲主的인 것이라는 데서 相異한 點이 不無하므로 亦是 함께 論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反省이나 省察이 다 같이 心之體用動靜中之事라는 데는 異議가 없으므로 相互聯關은 없지 못하니, 例컨대 存養의 靜時功夫가 없으면 省察하는 動時의 心之用事가 圓滿히 遂通될 수 없듯이 存養省察의 功夫로써 心之體用이 靜虛動直의 正常을 持得하지 못하면 反省을 일으킬 수 없다든지, 또는 反省의 契機는 省察로부터 얻어진다고 하는 等類는 있을 것으로 推想되므로 如斯한 關係事項이 發生될 때는 相關하여 論及하게 될 것이다.

一般的으로 省察이라고 하면 主觀이 外在하는 對象事物을 觀察하는 것과 自身을 觀察하는 일과 存養省察의 意味를 이르는 것이 있겠으니, 反省이란 自身을 觀察하는 省察이라고 大體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한다. 그러면 反省은 어떠한 것이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反省과 存養省察과의 關係가 密接한 것은 勿論일 뿐 아니라 本來 存省中の 것이라고도 하겠지만, 이러한 問題는 漸次的으로 闡顯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에 關한 論은 하지 않고 專혀 反省에 對해서만 若干 推說하여 보겠다. 反省의 反對語는 他省이 되고 內省의 反對는 外省이 되지 않을까 한다. 人間의 心性은 天命의 理와 氣로 構成되어 있으니 天地의 理氣를 一身一心에 具有하고 있는 小天이라고 할만하다. 누구나가 自己自身을 經驗하는 것만으로도

夫히 알 수 있듯이 우리 人間에게는 不學而知하고 不學而能하는 良知와 良能을 本來 具備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아 窮理正心之學을 修爲함으로써 天人一致 物我一貫 天地人物의 物理的 價值的 兩邊을 無遺히 感覺 知得 通透할 수 있는 能力者인 所謂 虛靈不昧 以具衆理 而應萬事者 即心을 具有하고 있음을 自驗自知할 수 있을 것이다. 人間の 心은 天地의 理氣로 이루어 졌으므로 血氣肉塊方寸之心에는 神明不測한 天地造化의 理氣之妙인 天地의 無心之心이 舍具되어 있어서, 우리의 有心之心도 저와 같이 아니 本來 一體의으로 四通八達 八窓玲瓏 無時無方하여 無所不知 無所不能 造化之功을 參天地而體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心을 具有한 人間이라면 宜當 有善無惡한 天理人이 되어 自他物我할 것 없이 觀照通達하지 못함이 없어야 할 터인데 至今 그대는 왜 反省云云의 問題를 學論하느냐는 詰問을 받 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人間은 形氣라는 形而下的 器具가 있기에 天命을 또한 稟受享有하여 生命을 營爲하게 되었으니, 이를 幸福으로 여기어 感謝해야 할는지 또는 偶然한 事實에 承服해야 옳을는지 모르겠으나, 如何든 謳歌만 할 形氣는 아니고 一便 一切의 非理를 產出하는 母體이기도 하니 오히려 咀呪해야 할 存在일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形氣는 幸不幸과 公私의 兩面性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없으니 아마 理一而氣二 本來부터 相對性者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人間은 왜 善惡이 있어야 하는가에 對하여 他宗教에서는 그들의 나름대로 說道하고 있는 모양이나, 우리 儒教는 理氣說을 가지고 學問的體系로써 이 問題를 解決하고 있으니 참으로 讚揚하여 마지않을 일인가 한다. 理의 絶對的 塗轍 法則 原因에 依因해서 發生하는 相對的인 氣는 清濁粹駁 偏全通塞 等이 紛紜錯雜 加一倍法의으로 愈大則愈小하고 愈細則愈繁하여 文字 그대로 人之氣質은 有萬不同 千差萬別한 것이다. 이러한 氣質에 담고 있는 天理를 가지고 우리는 心性情을 論한다. 在天한 理氣 形氣之累가 없는 理氣와 本同한 것이었건만 얼마나 末異한 것이 되었단 말인가? 이에 이르러 生知安行의 聖人을 除外한 그 以下는 智愚賢不肖가 各各 分數를 따라 어떻게 하면 本然의 理氣를 回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없이 莫重한 人間問題로 擡頭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인가 한다.

在我한 理氣는 本來부터 公然平正之物이었건만 形氣의 分殊로써 各各 獨立된 個體를 所有하게 됨으로부터 私邪한 것으로 退化하고만 꼴이 된 셈이다. 그리하여 天理는 濁駁한 氣質에 墮落함으로써 그 本然天理를 發揮하지 못하는데, 이에 後天的인 習慣性과 物欲마저 加勢하여 마치 明鏡이 塵垢가 粘著하여 物體를 照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된 것이다. 如斯한 形態로 氣質의 拘碍와 物慾의 交蔽 속에 安住하고 있는 衆人은 拘蔽가 愈深할수록 그것을 도리어 本然으로 誤認하기 쉽고 또는 이에 反하여 或 本然을 想像하여도 自暴自棄에 陷入하기가 十常八九이다. 이와 같이 氣質과 物慾에 拘蔽된 사람은 저도 모르는 中에 己私가 主本이 되어 反省이나 內省은 생각지도 않고 他省과 外省만을 일삼을 뿐이며, 設或 反省이나 內省을 한다하여도 在他人物을 正當하게 觀察하고 判斷하고 處理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拘蔽된 自我를 爲主로 하여 無所忌憚에 落坑하고 만다. 그러므로 氣質의 變化와 物慾의 克去가 없이는 眞正한 反省이나 判斷과 處理를 期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反省할 생각을 興起시켜 주지도 못한다. 氣質變化와 物慾除去의 方法이 또한 異常別在한 것은 아니고 다만 格物 致知 誠意 正心과 克己復禮의 功夫를 眞實至正하게 死而後已의 決意와 勇氣를 가지고 百顛百起 反覆習熟함으로써 身親到得하는데 있을 뿐이다. 卓然立志 斯學에 勇往邁進만 한다면 反省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한 反省이 아니면 爲己之學이니 君子儒가 되고자 하는 斯學을 達成할 道理는 없다고 믿는다. 於是乎 斯學을 修成함에 있어 反省보다 큰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여 보게도 된다.

이와 같이 重且大한 反省이란 또한 異常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나의 聰明靈覺을 向外的으로만 指向하지 말고 自我를 反觀內省하는데 優先的으로 注力하라는 것뿐이다. 儒教가 修己 治人之學이고 治人은 修己가 爲本이니 爲己 修治之學인 持敬窮理 格致誠

正 克己復禮를 힘써 濁駁偏塞한 粗雜氣質을 變化하여 精純清明하고 正通中和의 本然之氣를 回復하고 物我一理 私欲妄邪를 克去하여 道心常主하는 自我完成을 根本으로 삼으라는 것이 反省功夫이며 反省이 아니고서는 이 功夫를 成就할 수 없다는 것이 反省學의 趣旨이기도 하다. 權謀術數를 主로 하는 兵家 孫臏이도 “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고 하였거든 況 義理를 主張으로 삼는 儒家가 勝敗를 莫論하고 修己之學을 힘쓰지 않아 自身이 不直理屈하면서야 어찌 治人을 云云하리오. 이것이 바로 修己反省이 斯學에 있어 莫重한 所以이기도 하다. 그러나 反省은 決코 內向만을 偏重하고 外在事物의 觀察을 疎忽히 하거나 人文科學에 注重하는 나머지 自然科學을 等閑히 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內向과 外向 人文과 自然은 相須相資하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도 闕할 수 없는 것이로되 反省修己의 內向과 人文을 主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니, 萬若 主客本末이 顛倒되면 어떻게 濟人利物의 外向과 自然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는 오히려 治人愛物과 自然科學의 發達과 利用厚生을 이루기 爲한 일로써 그것이 根幹이 되는 것이니, 至理는 어디 가나 나타나는 것이 自然의 法則이랄까 이에서 偶然히도 理與氣는 一而二·二而一임을 볼 수 있기도 하다.

自我를 反省한다는 것은 一身에 關한 全體를 이르는 것이라 一一이 例學할 것도 없지만 이를 明確하게 하기 爲하여 생각하는 대로 몇 가지만을 具體的으로 말하겠다. 自身의 對衆人物을 認識判斷한 것은 果然 그 事物이 含具하고 있는 대로 그 對象 그 人物自身이 呈露하고 있는 대로 나의 問疑에 應答하여 준 대로 主觀이 介入하지 않고 歪曲됨이 없이 偏僻됨이 없이 完全하게 判讀知得하였는가를 反省하여 볼지며, 判斷에 따라 實踐한 行이 또한 周徧精切하여 天道至理대로 되었는가를 反省하며, 나아가 이러한 知行은 心之主宰의 所使然이니 判斷이 잘못되고 實行에 誤差를 가져온 것은 心上에 무엇인가 不足함이 있어서가 아닐까를 反省하는 일이다. 또 一言一動·一視一聽 一念之微에 있어서도 事實과 副應하지 않는 過不中은 없었는가? 滅天理而窮人欲의 罪過는 없었는가? 人之生은 直이니 果然 나는 正直한가? 罔之生也는 幸而免이라고 하였으니 果然 死生利害에 拘碍받지 않고 良心을 欺瞞하여 가며 行己無恥 苟且偷生하고 있지는 않은가? “子曰吾未見 能見其過 而內自訟者也.”라 하였으니 能히 自訟知過하는가? “子曰過而不改 是謂過矣.”라 하였으니 改過貴勇이라 能히 形式이나 富貴나 威武나 體面傳統이나 利害得失 등에 얽매어 可改則改之하고 可死則死之하고 可生則生之하며 可忍則忍之하고 可克則克之하며 可隱則隱之하고 可見則見之하는 등 從容中道할 뿐이니, 또한 이에 反하여 爲物所動 人化物也하여 血氣驅使하며 慷慨誤身하지 않는 不貳過·不遷怒의 能改를 하고 있는가? 子夏는 “小人之過也必文.”이라 하였고 孟子는 “且古之君子 過則改之 今之君子 過則順之 古之君子 其過也 如日月之食 民皆見之 及其更也 民皆仰之 今之君子 豈徒順之 又從而爲之辭.” 하였으니 能히 文過佞飾함이 없이 自反而縮하여 不改其樂之道를 戕賊함은 없는가? 孔子는 “鄉原 德之賊也.”라 하고 惡似而非者라고 하였으니 그야말로 阿世迎俗하여 世間の 八方美人이 되려고 하는 卑陋한 생각은 없으며 義理를 버리며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아가 誤人害物 至於一草一木一毫一微之事도 違天害理하고 있는가? 無時無處無大無小無內無外히 恒常 反省하고 있는가? 이를 反省하는 것이다. 反省이란 下學上達 小人이 君子되고 凡俗이 聖人되는 最大의 原動力이요 推進子이니 어찌 이를 外面하고 學問成德을 云爲하리오. 反省은 改過的 始初이며 終成이니 어찌면 下學君子의 反省改過는 循環不已하는 生活 바로 그것이 되지 않을까? 그리하여 終當에는 反省이 이기어 改過할래야 改過할 過誤가 없는데 到達하는 無過的 反省 所謂 知至至之 知終終之가 저 窮理盡性 以至於命의 學的究極이 되지는 않을까?

以上 反省의 意味를 論究하여 나아가는 중에 어느덧 多辭辯한 데 이른 것 같다. 이대로 좀 더 쓰면 될 듯하나 便宜上 몇 가지만 項을 更端하여 論해 보겠다.

## II. 省의 契機

反省은 吾心이 發動하여 自身의 心身知行 등 一切事項에 對하여, 그것이 或 이미 終結된 것도 있겠고, 아직 未決되어 現在 進行中인 것 中の 過去에 屬하는 것도 있겠고, 또 現在까지의 學問德行의 程度라던가 位置 따위 등 몇 가지 樣相이 있겠는데, 이런 것을 該事項만의 單獨으로 또는 視聽을 通하여 投影된 來觸事物과의 對比를 하는 形態 등으로써 反觀省察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反省의 契機란 心之體用動靜의 契機範圍를 離脫하여 別途로 契機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心之動靜의 契機中에서 어떤 것이 反省을 喚起開眼하게 하여 주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反省의 契機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이에 反省의 契機만을 가지고 論究하여 보겠다. 反省도 心의 知覺作用의 하나임에 틀림없으니 外物의 來觸이 있어야 이를 受應하는 것이 가장 많고 原則의인 形態일 것이니, 이를 外觸契機라고 名稱하여 본다. 外物來觸은 勿論 心의 發動契機이나 이 心之發動契機中에는 反省을 發動시켜주는 反省契機가 있으며 亦是 同一한 心之體用事이므로 이를 直接 反省契機라고 한다는 말이다. 다음은 이에 反하여 心의 自體內에서 陰陽動靜作用이 있어 心之發動契機를 이룸으로(筆者의 獨斷說) 이것이 能히 또한 反省을 喚起시켜줄 수 있을 것이니 나는 이것을 內觸契機라고 命名하여 본다. 다음은 다 같은 契機요 同一한 過去反省이라 하더라도 이미 終了된 過去事項이 있고 現在進行中의 過去事項이 있으니, 終了過去란 말할 것도 없이 十年前事라 하더라도 契機가 되면 反省해야 하는 것이고, 進行過去란 現在進行中인 事項이라 하여도 須臾之前도 이미 過去요 過去之事로써 浮上되어 能히 反省의 對象이 되고 契機가 된다. 終了過去와 進行過去는 共히 反省의 對象이 될 뿐 어떻게 그것이 契機가 된다는 것이냐 하는 疑問을 發할지도 모른다. 이는 當然한 發議이며 또한 分明한 對象임도 事實이다. 그러나 反省心을 喚覺시키는 契機로써 앞서 表明한 外觸契機와 內觸契機는 觸感의 所在가 內인가 外인가를 基準으로 삼아 分辨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過去契機와 進行契機는 그 契機의 時點이 已往인가 現在인가를 基準으로 하여 分別한 것이다. 要컨대 이제까지의 兩般說은 空間爲主와 時間爲主로 말한 差異가 있고, 또 前者는 觸感動靜上으로 論한 것이나 後者는 內容은 明示되지 않았지만 事項이라는 包括的 對象事物上으로 論한 것이니 이 點에서도 兩相不同하다. 그러면 果然 後者는 反省의 對象이지 契機는 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니 對象도 契機로 말할 수 있다. 왜 그렇다는 것인가? 大概 發動케 하는 契機란 二箇의 要件이 淸해져야 可能하니 다름 아니라 理와 氣의 關係이기 때문이다. 觸動하는 能은 氣이고 觸動하는 裏面의 實은 所이니, 空間을 爲主로 한 內觸·外觸의 契機는 能을 主로 하였을 뿐, 所 即契機內容이며 反省對象인 바로 過去·進行契機에서 말한 事項이 없이 能單獨으로 內觸했다는 意味가 아니고, 이와는 달리 後者인 過去契機와 進行契機는 所를 主로 하였을 뿐, 能이 없이 所單獨으로 來觸할 수 있다는 言旨도 아니다. 是故로 비록 主張하는 所言이 相異하다 하여도 實은 모두 反省契機로써 看做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添言하여야 할 것은 過去契機는 納得되기 容易할 듯하지만 進行契機란 都大體 如何한 것인가? 이것은 一言하여 動時省察中의 一側面을 指摘하여 말한 것이니, 心이 發動하면 存養靜安狀態를 提撕하여 道心爲主 發皆中節하게 하는 心之用的 持敬活動을 省察이라고 名言할 만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때의 省察活動을 圓滿히 遂行할 수 있는 것은 顏子以上이 아니면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 以下人은 或 爲物所動이 없지 못하여 省察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中絶斷續하여 人欲이 闖發하고 好惡無節하는 등 數種의 病痛이 簇生하는 渦中에 墮하게 되기가 十中八九이다. 이때에 中斷되었던 省察活動을 翻覺하고 聳動接續(翻覺 등도 動靜感應作用에 因한 것임)하여 省察을 復活하는 것도 能察하는 것이고 人欲私邪·四有所 등의 病痛을 能察하는 것도 省察이니,

此時의 省察은 비록 電光石火 같은 閃忽之間의 일이라 하여도 이미 過去에 屬할 것이며 이 過去는 다시 未來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過去省察 過去契機를 이미 終了된 事項을 이르는 過去契機와 區別하여 進行契機라고 하여 본 것이다. 또 이 進行契機는 自身도 不知不識 中에 發機하는 수가 많으니 翻悟·良心의 呼訴 따위와 같은 것임을 이른다. (過去契機라 하여 翻悟나 良心의 呼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니 이는 다만 進行中의 것일 뿐이다.) 다음은 反省이 對象 하나만을 始終反省하는 單數契機가 있는가 하면 反省이 또 反省의 契機가 되는 複數契機랄까 또는 連發契機랄까 하는 分別이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은 反省對象인 反省事項의 內容에 따라 分別할 수 있으니, 例컨대 理解가 잘못되고 判斷을 잘못된 것을 反省하는 것을 知的契機라 하겠고 實踐이 잘못된 것을 反省하는 것은 行的契機라고 하겠으며, 또 앞서 引用한 바 있듯이 “子曰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라 하고, 또 “子曰我未見好仁者 惡不仁者 好仁者無以尙之 惡不仁者其爲仁矣 不使不仁者加乎其身.”이라 하였으니, 이는 善을 보면 나도 그렇게 善하고자 하고 惡을 보면 나는 저런 惡이 없을까 하여 善은 知皆擴充하고 惡은 芟除하며 形氣好惡는 反射約情할지니, 이를 善惡契機라고나 할까? 其他 來觸하는 事物의 內容을 따라 多數種類의 契機가 있겠으니 이는 各自가 類推하면 될 것이다. 反省은 또 反省할 만한 일을 만나야 하고 其外는 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反省하는 心을 發動하게 하는 契機를 따라서 反省하는 것으로서 普遍當然한 것이며 이제까지 論及한 것이 거의 如斯한 것이었다. 이런 形態의 反省契機를 一括하여 遇事契機 또는 消極契機라고 하여 보고, 이에 反하여 必히 反省할 事項이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 恒常 反省하는 姿勢와 意欲을 가지고 無事時의 心存狀態를 反射點檢하여 본다든가, 自身은 果然 無慾한가 誠直한가라든가, 또는 나는 天理대로 認識하고 있는가, 天理대로 心身이 되어 있는가, 天理대로 行하고 있는가, 孔子의 말씀대로 “愛之欲其生 惡之欲其死 既欲其生 又欲其死 是惑也.”라 하듯이 내가 欲生한다하여 生하고 欲死한다 하여 死하는 것은 아닌데 부질없이 나의 愛惡를 따라 欲生 欲死한다면, 이는 天理가 아니요 私慾이며 惑이니 그렇다면 그 愛惡마저 天理底가 아닌 自私自慾의 逞肆가 아니었던가라는 등, 이루 枚擧할 수 없이 反省할 일이 나의 마음 하나로 해서 無限히 生産될 수 있지 않을까? 勿論 이것도 心之動靜 感應의 外에서 無感有應할 수 있음을 이르는 것은 아니고, 有感方有應의 法則內에서도 이러한 區分이 없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 後者를 常時契機 또는 積極契機라고 하면 어떨까 한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는데 大體로 反省이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며, 어떠한 狀況에서 하는 것이며, 어느 때에 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오히려 反省의 方法에서 論究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契機의 側面에서만 簡單하게 말해 보겠다. 衆人은 大概 反省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衆人이라고 하는 것은 自身을 心中으로부터 不足한 줄 모르는 사람, 謙遜을 形式的 要式的 行爲로만 알고 謙德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려야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 權力이 강한 王侯將相이나, 財物이 많은 富者나, 才能이 남보다 出衆한 者나, 血氣之勇이 남보다 過強한 者나, 好勝之癖이 있는 者나, 安過太平 懷土姑息 享樂主義者나, 自暴自棄者 따위를 이르니, 이들은 거의가 驕慢放恣 眼下無人 無所忌憚에 墮落하여 人生一世를 가장 貧弱淒涼하게 끝내고 마는 수가 殆半이니 이들에게서 謙遜이나 反省이 나올 턱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反省이란 恭敬忠順하고 敬天愛人하고 尊崇聖賢하고 善人善行을 思慕하고 天理人欲을 分辨하고 是非曲直을 가려 自我의 良心에 羞恥됨이 없이 살고자 努力하는 사람에게서야 尋覓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人生을 보람 있어 豊饒潤澤 泰然從容 天地萬物로 더불어 上下同流 同苦同樂 함께 살다가 함께 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어찌 언젠가는 完全히 없어질 形而下的인 알팍한 名聲이나 엄청난 載車之籍 따위를 이르는 것이라! 謙遜을 모르는 사람은 反省이 없고 나온대도 거짓이요 利欲 속의 것이리니 어찌 眞實한 것을 바라리오. 必然코 格致誠正 博約克復의 學問에 從事하여 存養省察之功을 漸

積하는 人格속에서만 眞正한 反省이 나오고 또한 이를 因하여 向上成德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名雖爲學而不知反省之功者는 어찌 爲己之學을 한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爲人之學을 하는 小人儒의 似而非한 學問之禍를 憂慮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眞正한 反省이 爲己之學者의 存養省察中에서만 나올 수 있다면 이러한 反省이 發出하는 時點이란 存養省察이 되고 있는 狀況詩節에만 亦是 可能하리라고 생각한다. 筆者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反省이 存養省察속에서만 眞正하게 나오는 것이라면 이는 實로 모든 反省契機의 母體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를 暫定的으로 反省의 基礎契機나 或 母體契機라고 해두면 어떨까 해서이다.

### Ⅲ. 省의 方法

反省은 그 契機를 따라 하는 것이요, 眞理를 推究하여 이에 到達하기 爲하여 無限히 止息할 줄 모르고 向上發展하여 나아가는 人間의 努力이니, 特別한 方法이 있을 것도 없고, 必要不可缺한 것도 아니요, 오직 誠心誠意를 다하여 그 目標을 다하고야 말겠다는 決意와 立志와 實踐이 무엇보다도 最重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百折不屈하는 決意와 卓然不動하는 立志로 至誠不息하는 實踐을 해나간다면 가장 賢明適切한 方法이 自見自得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漸進적으로 是正되고 向上成功되어 나아가는 業績을 隨伴하면서 同時에 生動躍如하는 生命力이 있으며, 自律的이요 各得其宜의 個性的인 것으로써 最後目的을 達成할 때까지 繼續生産되는 方法일 것이다. 이와는 달리 一般的 他律的方法을 提示하여 要求한다면 所期の 效果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요, 境遇에 따라서는 逆效果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以下에 몇 가지 方法을 생각나는 대로 記述하겠으나 至極히 原則的인 것을 除外하고는 오직 各自의 取舍選擇에 參考를 供與하려는 것뿐이다. 다만 添言할 것이 하나 있으니 本稿의 省論은 格致誠正의 學問修德을 爲하여 말한 것이나, 그러나 反省이란 그 自體의 일이 本質上 決코 學問에만 限定될 것은 또한 아니다. 이것은 斯學外에 다른 方途로 自己人格의 完成을 圖謀하는 어떠한 學問이든 宗教이든 必須的인 것일 것이며, 비록 精神科學이 아닌 自然科學의 分野나 其他 政治·經濟·社會等 如何한 事業에 從事하는 사람에게도 또한 當然히 實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의 參考는 그 누구나 必要에 따라 取用할 수 있음을 일러둔다.

#### 1. 基本確立

省의 契機를 論하는 前項에서 存養省察이 이루어지고 있는 心體가 平常時에 있어서이든 臨事時이든 간에 一切의 反省契機를 産出하는 基礎요 母體契機임을 말하였다. 그런데 反省은 이 契機의 內容事項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契機의 母體는 또한 方法의 母體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一切의 反省方法은 勿論 反省自體의 基本이 되는 存養省察의 功夫로써 心之體用之正을 優先적으로 確立하여 놓지 않으면 안 된다. 邵康節의 말대로 “天向一中分造化 人於心上起經綸.”이어서일까 反省이 本來 心學의 일이기 때문일까 보다 極本發原적으로 어느 일이든 心不正하면 하나도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心이 不正하면 反省을 할 起念이 發해질 까닭도 없고 發한다 하여도 圓滿한 反省을 할 道理는 없다. 여기서 存養省察의 功夫를 論할 餘裕가 없으므로 이를 論하지 않겠으나, 다만 한 가지 心不正하면 왜 反省이 發端되지 않고 또 圓滿히 遂行할 수 없다는 것인가? 但只 不正이라고만 하면 漠然한 感이 없지 않을까 걱정되어 簡單하게 論及할까 한다. 心이 正하다는 것은 心의 本然狀態를 表象함으로써 이에 反하는 것이 不正한 것임을 體

得하는 것이 보다 分明하리라고 생각한다. 心은 天命을 따라 天으로부터 稟得한 天之理氣의 在人之名이다. 天은 血氣之心이 없이 所謂 無心而成化인데 人間은 形氣之累가 있으므로 天之理氣를 本然대로 知行發揮하지 못한다. 人間中에서 오직 聖人만이 氣質이 淸粹하고 物欲이 없으므로 心中之天之理氣를 本然대로 保存하고 動靜體用할 수 있으니 程子所謂 有心而無爲이다. 이에 本然之心 天地之心을 밝히는 일은 聖人之心을 表見함으로써 可能할 것이다. 그러면 果然 聖人之心은 어떠한 것일까? 擅恣한 嫌疑를 무릅쓰고 내 나름대로 素朴하게 推測하여 보고 다음에 不正之心을 말하여 보겠다.

첫째, 聖人之心은 天地와 같이 廣大하고 河海와 같이 無量深密하여 邊幅이 없고 涯涘가 없으며 氣質의 拘碍나 物欲의 交蔽가 毫釐之微도 없으므로 天地와 더불어 生死를 함께 하여 無始無終 無我無物 無窮無盡 天地와 같이 悠然從容하고 日月과 같이 長閑恒明하다. 天地의 太極陰陽은 聖인에게 와서 그대로 保存되어 仁義禮智의 天地之性과 神明不測한 天地之心으로 된다. 天地와 聖人は 그 道에 있어서나 心에 있어서나 不同한 것은 없으나, 한 가지 天地는 血氣가 없으므로 無心而成化하고 聖人は 血氣之心이 있지만 有心而無爲하니, 無心有心의 相異함이 있으나 또한 有爲無爲에서 一致한다. 天地의 造化之功은 栽者培之하고 傾者覆之하여 物各付物 賦與萬物而已 不勞焉하고, 聖人は 生而知之 安而行之하며 不思而得 不勉而中이라 그 德化가 無爲하여 先天而天弗違하고 後天而奉天時하되 亦是 아무런 勞攘人爲가 없다. 資稟이 至善한 사람은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境遇를 莫論하고 善밖에 나올 것이 없듯이 聖人は 언제나 仁義禮智의 天理밖에 나올 것이 없으니 自然而然이라 어찌 一毫인들 煩雜함이 있겠는가. 聖人の 至極한 德은 天과 같이 不言而信하고 神과 같이 不怒而威하나니, 孔子의 所謂 “大哉堯之爲君也 巍巍乎唯天爲大 唯堯則之 蕩蕩乎民無能名焉.”이며 “古之聰明睿知 神武而不殺者夫.”이고, 孟子의 所謂 “君子所過者化 所存者神 上下與天地同流 豈曰小補之哉.” 리오 이니, 이는 모두 聖人之心의 與天爲一함을 意味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까지 論한 聖人之心을 우리에게 좀더 理解되기 쉬운 말로 表現하여 보면, 繫辭의 “易 無思也 無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非天下之至神 其孰能與於此.”라 하여 心之體用 動靜 寂感 神妙之極을 말하였고, 中庸에는 中和位育之極致를 이르고 自誠明이니 誠者天之道也니 하였으며, 其外 先賢의 論을 合言하여 보면 事物未感時는 不偏不倚未發之中이니 無思無爲寂然不動이니 虛明寧靜이니 廓然大公이니 鑑空衡平이니 하여 心體之極을 形容하였고 事物既感에는 無過不及, 發皆中節, 已發之和이니 感而遂通天下之故니 動直이니 物來順應이니 因物付物이니 物物而不物於物이니 隨物而應이니 하여 心用之極을 表象하고 있다. 以上은 모두 聖人之心의 體用이 公正함을 이룬 것이니 衆人之心의 本然도 當初에는 當然히 이래야 하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衆人は 稟氣가 駁雜하고 物欲이 纏繞하여 天地之理氣인 心性之本來者를 持存하지 못하고 形氣所驅의 使役物이 되고 만다. 그래서 事物이 未感하여 鑑之空이나 衡之平과 같아야 할 此心之體는 昏昧雜擾하여 寂然不動이니 未發之中은 찾아볼래야 없고 事物이 既感하여서는 顛倒錯亂하여 判斷과 實行의 心之用이 是非相反 十常八九는 不中不節한다. 聖人之心과는 달리 蝸牛角上이나 田螺尾根과 같이 狹窄하고 河海는 커녕 行潦之水와 같이 淺薄浮露하니 所知所行이 不問可知요 心之體用이 常失其正이라 本然과의 逕庭이 何啻倍蓰리오마는, 寒心한 것은 私己속의 내가 그래도 옳고 第一이라 傲慢하여 自身을 救濟하고 向上하려는 意志가 없으니 어찌 修己反省의 眞實한 學問을 하리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天地之心性を 回復하여 聖인과 같아질 수 있을까? 그 方法은 深遠하고 險難한 곳에 있지 않고, 첫째는 自身의 不足함을 確實히 알고 보다 向上해 보겠다는 卓然한 意志만 堅立한다면 참으로 思已過半矣라 是非를 알려하고 非過를 遷改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懇切하리니 어찌 反省과 格致誠正이며 存養省察之功을 修爲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리오. 舜何人 予何人 有爲者亦若是라고 한 顔子나 聖人可學而至라고 한 程子가 어

찌 後學을 欺瞞이야 하겠는가? 生命을 걸고 하면 可能하겠지만, 그러나 下學而上達 聖인이 되기까지는 難於上天이라고 한 古人의 嘆聲대로 참으로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둘째 學問致功은 또한 반드시 先聖賢의 教育方程에 따라 漸進 順序 用功하여야 한다. 아무튼 聖學을 功夫하여 心之體用이 得正하면 反省의 契機가 이로부터 產出되는 母體契機이겠지만, 但只 博文約禮 存養省察의 功夫를 하는 過程에 있어서만도 存養과 省察이 相互須資的인 것처럼 反省의 契機를 充分히 提供하여 줄 것이니 이 어찌 反省의 가장 根幹이 되는 方法이 아니겠는가.

## 2. 形式的 方法

曾子는 吾日三省吾身이라 하여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라는 三事に 就하여 反省하여 보았던 것 같다. 이것은 隨事反省이 되겠으니 自身이 功夫하는 중에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事項 則曾子の 三事같은 것이라든지, 自身에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事項 즉 上蔡의 所謂 克己須從性偏難克處克將去와 같은 것 따위를 事前에 反省要目으로 選定하여 놓고 每日 이것을 反省하는 것인가 한다. 그런데 曾子の 吾日三省을 曲解하여 一日之間에 三事を 三番 省察하는 것으로 說明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勿論 曾子の 本意와 程·朱를 비롯한 諸儒의 解釋을 理解하지 못하는 見解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이는 爲己修治之學을 實體下功하지 않고 記誦詞章 등 皮相的인 似而非學을 하는 學者의 沒理解한 妄說이기는 하나, 왜 그것이 誤說이나에 對해서는 如前히 또 그 理由를 그런 部類의 學者群이 解得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왜 誤謬냐에 對한 答辯은 至極히 簡單하니 反求諸身하는 反省이란 一日만 하고 만다든가 一次나 二·三次만 한다든가 하여 預히 限定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反省할 契機가 왔으면 언제 어디서나 몇 번이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對하여 反問하여 그렇다면 契機가 없을 때는 反省하지 않는 날도 있다는 말인가? 答은 또 簡單하니, 그렇다. 但 曾子の 三事は 每日 契機가 없을 수 없을 것이며 또 曾子の 三事說의 本旨는 三事만 反省하고 他事は 反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自身에게 重要切實差難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를 衆目 中에서 拔萃한 것일 것이며, 하물며 또 契機가 있어야만 하는 消極的인 反省뿐이 아니고 自身이 契機를 만들어 하는 積極的인 反省도 있었으리니 契機가 없으면 反省하지 않는 날도 있겠다는 것은 徒然한 杞憂에 不過함일 것이다. 曾子說을 誤解하는 所以며 曾子說의 本旨를 妄斷臆測하는 말이 이미 叙上한 바와 같으니, 曾子說의 本旨와는 關係없이 別途로 反省은 一日에 一次를 한다든지 三次를 한다든지 定하여 놓고 하는 反省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를 定時反省이라고 暫稱하여 두는 바이다. 앞서 曾子說을 論究하는 中에 暫間 言表한 消極的인 反省이란 契機를 逢着하여야 하는 隨事反省이 되겠고 積極的인 反省은 回數를 前定하여 놓고 하는 定時反省이 되겠다. 反省要目에 對해서도 이를 選定해서 할 수 있으니 이는 定事反省이라고 하겠다. 此外에 積極的인 反省으로는 自身이 修學要目에 對하여 積極的으로 設問點檢하여 하는 것도 可能하리니 이는 設問反省이 되겠다. 또 一事를 繼續的으로 成功될 때까지 한다든지 死而後已 終平生을 두고 하는 反省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繼續反省이라고 할만하다. 此段은 消極과 積極의 兩側反省을 말한 것이 되겠으니 首擧한 曾子說에 就하여 이를 分析하면 日字와 三事は 모두 積極的인 定時·定事反省이 되고 省字는 契機를 따라 反省한다는 意味이니 消極的인 데 屬한다. 積極과 消極的인 省察을 論하는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契機를 따라서 하는 消極的인 反省도 始初만 그렇지 積極으로 變轉될 수도 있고 또 보다 消極的인 裏面에는 消極的인 反省의 契機를 形成시켜주는 積極的인 反省의 要目이 前在하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 積極的인 反省도 契機를 創造하여 하는 것이지만 그 創造自體가 造作的인 妄設이 아니라 契機가 있어야 反省하는 消極的인 反省의 意味가 亦是 一邊으로 存在하고 있으니, 實은 定時·定事反省을 前定하고 反省할 契機를 誘發釀成

하여 設問하는 意味가 그 主脈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積極과 消極反省은 如斯한 相關關係가 彼此에 있음을 勘案해야 할 것이다. 以上으로써 反省의 形式的方法의 原則을 말한 것이 되리니 어떠한 方法의 反省이든 여기에 包羅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事項과 저러한 事項도 있다는 말은 形式的方法보다는 反省의 實質的內容이 되는 意味가 많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論해 보겠다.

### 3. 實質的 方法

이 方法은 反省을 하되 얼마나 誠實하게 하느냐 詳密周徧有效하게 하느냐 하는 反省功夫의 內容自體를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形式的方法은 回數나 事項 등을 前定하고 하느냐 안하고 하느냐 하는 問題이나 實質的方法이란 反省事項을 어떻게 反省하느냐 하는 것이므로 兩者의 사이는 設令 類似한 點이 있어 混亂되기도 할는지 모르나 스스로 그 限界가 있음을 理解하면 될 것이다. 反省을 具體的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든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를 提示하는 것도 좋겠으나, 오히려 事項 別로 말하는 것만큼 切實하게 感受되지 못할 것 같으므로 事項 別로 몇 項目만 提擧하여 究明하겠으니 他 事項은 이를 類推하면 될 것이다. 다만 反省을 해가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直接 該 事項의 研究內容이 될 것이므로 問題의 性質上 그 大體的인 것만을 論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음을 事前에 일러둔다.

論語에 “子曰見賢事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하는 말씀은 賢·不賢·善·惡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함을 明示한 것인가 한다. 善을 보고 나도 저렇게 善하였으면 하고 惡을 보았으면 나는 저러한 惡이 있지 않을까 하는 所謂 思齊와 內自省은 反省을 이르고 反省으로부터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든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教誨한 것이다. 人之善惡을 接見하고서도 反求諸身하여 反省하지 않는 者는 아예 思齊니 內省改惡向上등의 契機가 發生하지도 않을 것이니 말할 것도 없고, 反省을 하여도 眞實하게 하지 않는 者는 그저 他人之善을 보고 羨望하기만 하고 自身에게 不足한 이 善을 取補하지 않거나, 이런 者는 흔히 他人之善을 貶斥毀損過少評價하여 善善之心 與人爲善 樂取諸人而爲善之心이 없는 것 같으니 惡이 될 것이고, 他人之惡을 보면 어느덧 自身은 自責悔過向上할 것이 하나도 없는 聖人君子의 地位에 巍高히 坐定하고 惡惡責人만을 餘地없이 苛酷하게 하리니, 이는 그 原因이 反省을 誠實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如此者의 惡惡이 어찌 또한 正確함을 얻은 것이겠는가? 오직 自惡을 더욱 添加하는 結果밖에 안 될 것이다. 反省을 眞實하게 하여 切身爲己之學에 勉力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不賢이 있어서 改過遷善하고 補不足해야 할 것이면 改過貴勇이요 改過到盡底라 即時하고 徹底히 하여 不貳過를 仰學할 것이요, 不賢不善이 없으면 더욱 周徧精切 至極한 善이 되도록 努力을 傾注倍加하여 善惡皆吾師요 成人之美의 君子之度を 養成하게 되리니, 어느 罅隙에 他人之善을 戕傷하고 惡을 誹謗만 하며 己之善을 將養하고 惡을 懲治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이에 이르러 反省이 우리의 爲己修治之學에 더없는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切感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子曰已矣吾未見能見其過而內自訟者也.”케라 하셨으니, 能히 內自訟하면 恥過悔悟함이 切實하여 改而後已할 터인데 已矣吾未見이라고 歎息하신 것은 글썽 能히 內自訟·內自省의 切己한 心的反省을 하는 爲己學者가 적음을 意味하는 것이나 아닐는지? 不學則已어니와 學之인댄 어찌 爲己君子儒의 學問을 하지 않을 수 있으랴! 反省의 重要함을 아는 것과 同時에 反省을 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또한 後添한다. 몇 가지 例를 더 들어 詳論했으면 하나 紙面關係上 이것으로 此項을 그치니 어떤 種類의 事項이든 이를 類推穿鑿하면 可能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다만 論究하고자 한 事項만을 記述하여 參考에 供할까 한다. 格物·致知·誠意·正心과 克己復禮, 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과 持敬行恕며 中和位育, 存養·省察, 過接

關頭·機括作用, 止·定·靜·安·慮·得이며 浩然之氣와 道義·養氣說이며 言行과 改過며 忿怒와 恐懼며 佞諛, 飾辭, 鄉原이며 心性論 等이다. 學問修治의 功夫에 있어서 反省의 對象이 되지 않을 것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心身修養에 比較的 緊切한 것을 생각하는 대로 抽記하여 본 것이다.

#### IV. 聖賢의 省

먼저 聖人도 反省을 하는가? 反省을 한다면 그 內容이 凡人의 反省과 다른가 같은가, 어떻게 같고 다른가? 要컨대 反省이 聖人에 있어서도 價値가 있어 해야 하는 것일까? 흔히 聖人은 生而知之하고 安而行之하므로 不學而能이라 學問하지 않고, 不足함이 없으므로 不足함이 있는 것으로 말한 것은 一切가 教育的인 意味에서 하는 謙辭이거나 謙德의 所致로 自聖하지 않는 것일 뿐, 實際로 不足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傾向인 듯하다. 이렇다면 反省도 하지 않을 것이고 必要하지도 않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見解가 그런 것은 아니나 이는 凡人으로부터 聖人을 觀照하는 側面의 主張이지, 聖人의 속에 들어가서 自照하는 말은 아니지 않은가? 聖人 自身의 反觀으로는 不足한 것도 있으므로 學問도 하고 謙遜도 有所爲而爲之의 假飾이 아니라 眞實로 하는 것이고 反省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相反된 主張은 各各 觀察의 側面을 달리하는 데서 齋來되는 것일 뿐이니 서로 極端的인 主張을 함으로써 實相을 歪曲하는 일만 없다면 止揚共存되는 것이 聖人을 아는 것이 되지 않을까도 한다. 이 問題는 聖人의 認識부터 眞正하게 해야 하나 여기서는 이를 詳論할 겨를은 없고 다만 다음과 같이 卑淺한 俗見으로 揣臆하여 본다. “聖人이란 氣質이 淸粹하고 才能이 聰明睿智하며 物欲이 없는 天心 天性의 사람이다.”라고 말이다. 이 말이 聖人을 定義하는데 있어 過히 그르지 않다면 이를 根據로 하여 學問도 謙遜도 反省도 그 眞義를 糾明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氣質이 淸粹聰明하고 無物欲하면 天地之心性を 그대로 保存하고 發揮하고 있으리니 이는 天人一致의 基盤을 定立하고 있는 것이 되겠다. 그런데 于先 天人一致라는 말을 正確하게 把握하려면 그 異同을 疎明하여야 할 것이다. 天은 血氣의 心이 없으니 氣質을 變化해야 할 憂慮도 物欲을 克去하여 天理를 回復해야 할 일도 없이 天理自然이다. 血氣之心을 具有한 人間은 濁駁한 氣質에 拘牽되고 物欲이 交遮하니 天心天理가 어디 있는지 마치 稟得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聖人은 비록 天은 無心而成化하고 聖人은 有心而無爲라는 말대로 外面으로 相異하지만 衆人과는 달리 淸粹한 氣稟에 物欲이 없으므로 人爲가 없는 有心은 無心과 같고 無爲인 有爲는 成화와 같다. 天과 聖人은 一箇의 天地之心이요 天地之理이다. 一箇의 天理自然이니 어찌 一致하지 않는다 하리요, 아니 오히려 表現이 不足하니 天則聖 聖則天이다. 그런데 天地도 宇宙間의 一箇物이요 人間도 亦是 一箇物이니 天理自然의 側面에서는 天人一致일뿐 아니라 宇宙內萬物은 總하여 各自一箇物이요 一箇天이라 天과 河海山嶽이나 人和 河海山嶽도 本來一致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宇宙間의 天·地·日·月·星·辰·山·河·陸·海·禽·獸·草·木·牛·馬·魚·鼈 等 一切萬物은 各自 그것대로 天理自然의 속에서 그 法則을 따라 獨自의인 生活을 營爲하고 있으니, 天理의 一元的側面에서 볼 때는 本來一貫이요 有關의 一致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萬物의 理가 一元이요 一致라고 하여도 또는 相異한 氣라 하여도 天理自然의 側面이나 아니면 天理自然대로 處理되었을 때는 天人物物이 一致一貫되지만, 氣의 萬殊 物理自然의 世界에는 依然히 物物相異한 側面이 固然한 것이다. 天理自然과 物理自然이 一致하는 境遇는 萬殊인 物理自然을 理解하는 範圍內에서만 그것의 自然인데서 一致할 뿐, 그것을 理解하지 못하는 未知의 世界에서는 一致할 수가 없다. 天人一致란 이와 같이 本來一致

인 세계 則聖人の 生知安行의 것과 物理自然을 已知하는 範圍內의 것이 있고 未知의 세계 不一致의 側面이 있다. 이 不一致의 세계를 一致의 範圍로 만드는 길은 未知의 세계를 創造的으로 發明하고 開拓하여 已知의 세계로 만드는 方法 外에 他道는 없다. 一致의 세계를 聖人の 後天而奉天時에 比한다면 不一致의 세계를 一致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先天而天弗違에 譬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天之無心과 人之有心은 價值的으로 一致하지만 血氣之心의 有無라는 物理的差異는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 아니겠는가? 血氣之心을 存有했다는 事實은 動物이라는 短點도 되겠지만 靈妙不測하고 神明無窮한 能力을 保有하고 있다는 데서 天地를 代辯하고 位天地 育萬物하는 主人公으로서의 長點도 되지 않을까 한다.

以上에서 우리는 聖人の 生知安行과 天人一致의 眞義를 알았으니, 物理自然의 未知世界를 開拓하는 學問이 없을 수 없는 것과, 또 그 學問이란 天理自然의 세계와 物理自然의 세계가 一致되어야 하는 것이니, 아무리 生知安行의 不學而能하는 側面은 그대로 認定하여 둔다 하여도, 結局은 幾分이고 간에 끌려들어가야 하는 그리하여 新知의 세계와 無限히 一致되어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學問이 있다면 不足한 點과 마음이 없을 수 없고, 不足함을 느낀다면 反省과 謙遜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하고 비록 鵬鷃之嫌이 없지 않겠으나 推測하여 본다. 그러면 聖인이 學問·反省을 했다는 根據는 무엇인가? 이제 그 實際性이 있는 것만을 몇 句節 引舉하여 보겠다. “子曰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라고 하였으니 이는 孔子가 七十이 넘어서 自身의 學問歷程을 回顧述懷한 것으로 看做된다. 이에 對하여 程子是 生知安行하는 孔子가 學問을 由하여 이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은 後學을 勉進하는 教育的인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結局 學問하여 이른 것이 아니면서도 由學而至하였다고 謙言한 것이라는 意味가 되겠다. 그 다음 朱子是 聖人은 生知安行이라 本來 이루어진 것이지 下學上達 漸進積累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또 一邊으로 그러나 其心으로는 나는 이미 聖人이다라거나 至道에 到達하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서, 이어 “是其日用之間 必有獨覺其進 而人不及知者 故因其近似以自名 欲學者以是爲則而自勉 非心實自聖 而姑爲是退託也.”라고 하였다. 朱子說은 程子の 生知安行說을 認定하고 後學을 勉進하기 爲하여 謙辭한 것임도 그대로 認定하였다. 다만 程子の 本意를 闡發한달까 또는 補充한달까 謙辭이긴 하나 聖인이 心中으로 自聖이라고 自處하고 後學勉進만을 爲하여 架空虛辭를 한 것은 아니라는 意味를 일렀다. 그리고 聖人の 謙辭하는 本意를 미루어 日用間에서 進歩하고 있음을 獨覺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他人은 聖人の 進歩를 及知할 수 없지만 聖人自身은 이를 獨覺한다는 意味가 아닐까 한다. 獨覺其進을 말한 朱子の 本意는 聖人을 客觀的으로 보아서는 勿論 完全하고 聖人自身이 主觀的으로 反觀하여도 完全하지만, 聖人自身이 完全하다고 自足自聖한다면 聖人될 수 없으니 孔子는 스스로도 完全한 줄은 알라도 마음에는 不足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解釋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 아래에서 學者를 自勉하게 하기 爲하여 心實自聖을 하면서 姑爲是退託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獨覺其進은 虛謙之辭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뿐이 아니라 設令 朱子の 本意가 孔子自身이 完全한 줄을 알면서도 假託虛謙을 이르는 意味의 獨覺其進이 아니고 實謙에서 나오는 獨覺其進이라고 한다면, 이는 實質上으로는 아직도 自身은 不足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獨覺其進과의 距離는 決코 멀지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要之컨대 程子나 朱子是 모두 聖人の 生知安行의 不學而能하는 側面을 理解認定하였다. 그러나 朱子是 獨覺其進을 添言하였으니 이는 聖人の 心中으로 들어가 앉아서 이를 代辯한 말이다. 前說이 聖人을 客觀的으로 觀照하여 完全함을 이룬 것이라면 後說은 聖인이 主觀的으로 自身을 自照反觀하여 不足함을 自覺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다. 程·朱說을 여기까지 推究明皙하고 보니 筆者가 앞서 揣臆한 生知安行 天人一致의 세계는 兩賢의 生知安行說과 크게 相異하지 않을 것 같고, 獨覺其進說은 理一元

天理自然의 天人一致世界와 氣萬殊 物理自然中の 未知의 世界는 原則的으로 天人一致世界와 또한 一致一貫하는 相須相資의 關係의 限界內에서 天人一致의 完全世界에도 不完全을 말할 수 있다는 意味와 적어도 互相照應되고 相通되는 點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必有獨覺其進而人不及知者”라는 말을 미루어 그 眞實性을 論證하여 볼까 한다. 論語에는 또 이르기를 “子曰可與共學 未可與適道 可與適道 未可與立 可與立 未可與權.”은 勉人以全學이니 學問의 深淺度數를 推測할 수 있는 章이라고 하겠다. 共學·適道·與立·與權은 自始至終 自淺至深이니 聖人만이 可能한 行權之道를 알게 한 것이니 前舉한 志學·立·不惑·知天命·耳順·不逾矩의 말과 같이 學의 無窮함을 이룬 것도 되겠다. 또 “子曰莫我知也夫子貢曰何爲其莫知子也 子曰不怨天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이 말에서도 聖人の 學問은 그 窮極을 他人은 測度할 수 없고 天만이 知之할 수 있는 天人一致의 境地에 到得하였음을 이룬 것이니 또한 學問의 無窮함을 推知할 수 있을까 한다. 이 二章만 하여도 學問이란 無限한 것임을 알겠으니, 例컨대 天을 知한다 하는데도 蒼蒼한 碧空을 보고 알았다고도 하겠고 또는 天에는 日月星辰이 繫焉하고 動而左旋함을 가지고 알았다고 하거나 나아가 天即理也임을 보고 알았다고 하기도할 것이니 蒼蒼만을 아는 자가 어찌 天即理를 知得하겠는가? 可與權이나 知我者天이나 또는 不逾矩를 衆學者가 어찌 알겠는가? 學問이 이와같이 無窮하니 眞所謂 泰山之上更有天이라 聖人은 聖人대로 또한 不足함이 있고 그러기에 他人所不知而獨覺其進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찌 이것이 한낱 虛構的 謙辭이기만 하겠는가? 朱子の 此言은 참으로 知聖知天之言이라고 생각됨에 讚仰不已한다.

다음은 孔子도 學問을 하였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所論으로도 可知이지만 亦是 論語에는 이르되 “子曰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라 하였으니 이는 聖人은 美質을 가지고도 다만 學問을 하였다고보다는 그 누구보다도 好學하였음을 넉넉히 알만하다. 孔子는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라 하고 顏淵을 일러 不改其樂이라 하고 스스로 樂亦在其中矣라고 하였으니 好之뿐이 아니라 樂之하였음을 因以知之하겠으니 어찌 聖人之學을 하지 않았다고 하겠는가? 朱子는 孔子를 일러 只十五歲時에 便斷然以聖人爲志矣라고 하였으니 어찌 또한 聖人之學을 하였음을 말한 것이 아닐까? 또 “子曰假我數年 卒以學易 可以無大過矣.”라 하였고 孔子世家에는 孔子가 晚而喜易하여 序象·繫·象·說卦·文言하고 讀易에 韋編이 三絶 曰假我數年하여 若是我於易하면 則彬彬矣라고 하였으니 孔子가 七十이 넘어서까지 얼마나 好學을 하였으며 易을 學하여 아직도 未盡함을 哀惜해 하였는가를 짐작할만하다. 또 “子在齊聞韶 學之三月不知肉味 曰不圖爲樂之至於斯也.”라고 하였으니 此亦 身親學韶하여 不知肉味하도록 專一深醉하였고 樂이 여기에까지 至極할 줄은 몰랐다고 함으로써 誠感함이 깊고 默契于心하였음을 알겠으며 또한 後日 韶는 盡美矣요 又盡善也라 하고 武는 盡美矣요 未盡善也라 하였으며 나아가 顏子의 爲邦之間에 樂則韶舞로써 告하였으니, 韶樂의 大舜大德으로 雍熙平成之治를 이루고 自然히 發象된 朱子所謂有以極其情文之備者임을 알게 한다. 孔子가 아니면 韶樂의 盡美盡善의 至極함을 알 수도 없고 또 그 境地에까지 到達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이 章도 聖人の 學問하였다는 事實과 그 學問의 到達境地는 常人이 測度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證하여준 것이 되지 않을까? 이에 學問의 無窮함과 所學之理의 精微深奧한 層次가 많음과 聖人之學은 至極無比 高次元의 이어서 誠感之至에 不覺歎息하기도 하고 獨覺其進하기도 하고 發憤忘食하기도 하고 終夜以思하기도 하고 可以無大過矣라고도 하였으니 어찌 聖人나름대로의 好學이며 未滿之意가 없었겠는가? 孔子는 子貢之問에 答하는 中에서도 堯舜도 其猶病諸라 하여 心中으로 오히려 不足之感이 있다고 하였으니, 眞心으로 不足하게 여긴다 하여 또는 不足한 것이 眞實로 있다 하여 그것이 어찌 凡人이 及知할 수 있는 不足이며 그것이 어찌 聖人の 生知安行을 害損하는 것이 되겠는가. 이에 이르러 不足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眞實이라면 어찌 聖人の 謙遜이 無實架空之辭일 수 있으며, 어찌 爲

後學教誨之術이 何必 無實謙辭로써 後學의 眞情勉進之實을 期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實力보다 一步 낮추어서 하는 謙辭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筆者가 主張하는 聖人也 聖人나름의 反省이 없을 수 없음도 可見일 것 같다.

“子曰巧言令色足恭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匿怨而友其人 左丘明恥之 丘亦恥之.”라고 自身의 恥之를 말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欲爲와 欲不爲의 誓作之心の 表現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心思를 갖는다는 것은 敬愼하는 心, 省察反省하는 心이 있음을 反證하여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그 敬愼 그 省察反省은 自然之敬者이요 功成盛德之敬省일 뿐이니 어찌 없다고 하겠는가? 여기 한 가지 恥字義를 解明해야 하겠다. 恥는 羞惡之心이니 可恥之過가 있을 때 그것이 있음을 誠心으로 恥之하고 恥하면 悔하고 悔하면 悔遲有悔이니 速改不復過하나니 참으로 恥之於人大矣이나 이 恥는 實로 反省에서 由得되는 것이니 反省之功의 莫大함을 可見이다. 그런데 聖人은 無過可改며 無過可貳니 恥其過나 不貳過는 該當되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能히 이런 것은 自然之省察反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恥之는 有過恥之가 아니고 이러한 일은 하지 않겠다는 恥之니 行己有恥之義와 같을까 한다. 이러한 誓心이 敬愼과 反省을 적어도 源泉의으로 涵具하고 있지 않다고 하겠는가? 한 가지 無關한 말이 될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이 말을 보고 世之匿怨友人之徒는 얼마나 表裏不同에서 오는 良心의 自愧를 自認하는가? 恥字義가 有過恥之도 自修之功에 있어 莫大하지만 有所不爲의 恥之야말로 過誤를 豫防하는 莫良之藥物이 되지 않을까? 因此以添之耳한다. 또 “子曰出則事公卿 入則事父兄 喪事不敢不勉 不爲酒困 何有於我哉.”아 하였으니 聖人이 어찌 이런 不足이 있어서 이겠는가. 不足이 없어도 不足으로 생각한다고 하겠으며, 또 他人이 보면 仁熟義精하여 不加毫末萬善自足이지만 聖人은 聖人나름대로 慊然不足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도 하겠다. 中庸에 引用된 君子之道四 丘未能一焉도 이와 같아 오히려 不足하게 여기는 것이니 이러한 心思가 어찌 反省에서 나오지 않을까? 아니 도리어 이 自體가 反省이 아니겠는가? 또 “季文子三思而後行 子聞之曰再斯可矣.”라 하였으니 이는 聖人의 寂然不動感而遂通 靜虛動直 風感水受之神妙함을 보여주신 大敎訓이다. 事物來觸에 有感則應 應必適中 若決江河한 義理는 直觀覺과 思之로 當否가 判斷되니 이것이 一思初判이고 勿論 是非得當하였지만 이를 다시 한 번 平心冷徹하게 審察한다는 말이니 이 어찌 聖人之反省이 아니겠는가? 三思의 反省은 反省이 아니니 어떻게 하면 우리는 如斯한 反省을 배울 수 있을까?

以上으로 聖人이 하고 있는 學問과 反省과 謙辭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就中 反省은 孔子에 있어서도 聖人나름대로 重要的 것임을 理解할 수 있지 않을까 未洽하나마 생각하여 본다. 한 가지 老婆心의 이기는 하나 이제까지 聖人孔子를 말하는 중에 或實情에서 引上誇張하거나 引下平說하지 않았는지 悚懼스럽다. 어느 것도 過不足이 있어서 안 될 것이나 聖人能知聖人이니 淺薄이 어찌 得中함을 冀하리오. 다만 高明讀者는 聖人은 天이요 人이니 天을 이룰 때도 人을 離할 수 없고 人을 말할 때도 天임을 알아 活看하심을 빈다.

顏子는 資稟이 孔子에 거의 比肩되는 亞聖이니 아마 顏子以後 學問은 廣博深密하여 大成한 大賢이 있어도 顏子만한 生知安行의 天資와 希聖成聖의 聖學을 達成한 先儒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未達一間이니 만큼 孔子보다 더욱 學問反省의 功夫가 있었으리라고 여겨진다. 顏子는 自謂하여 이르되 “願無伐善 無施勞.”라 하고 “喟然歎曰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 既竭吾才 如有所立卓爾 雖欲從之 末由也已.”라 하고 또 問仁하여 克己復禮之目으로써 非禮勿視 聽言動의 敎訓을 받고 “曰回雖不敏 請事斯語矣.”호리이다. 하였다. 여기서만 보아도 格物致知·誠意正心과 克己復禮·四勿功夫에 從事하였음을 보겠으며 그중에 四勿의 勿字나 克己復禮의 克·復二字나 仰高鑽堅·在前在後·末由也已의 歎息은 亞聖之學의 努力하는 面貌며 所造之域을 窺見할 수 있을 듯하다. 이 모든 學問成就에 反省하였을 것은 말할 必要가 없을 것 같다. 孔子는 顏子의 好學

을 일러 “不貳過 不遷怒” “回也其心三月不違仁.”이라 하고 “有不善未嘗不知 知之未嘗復行也 易曰不遠復 无祇悔元吉.”이라고 繫辭에서 일렀다. 聖師가 聖弟를 論한 것을 보아도 顏子가 自言한 것에서 볼 수 있는 亞聖之學과 反省의 意味를 充分히 讀破할 것 같다. 形現之過나 血氣之怒가 幾無하다 하여도 不貳不遷해야 할 心上의 過와 怒가 있었고 三月不違仁이면 三月之外에는 비록 纔離即回한다 하여도 亦是 違仁을 幾分일까 難免이며 不遠復은 纔有不善하면 便能知之하고 纔知之하면 便更不萌하는 것이니 亦是 心上의 不善이 發했다 하면 時間空間的으로 不遠而復하는 것일 뿐 不善이 微有하는 수가 全無한 것은 아니다. 反省省察이 없고서야 어찌 能히 便知便復하고 不貳不遷·不違할 수 있었겠는가?

曾子는 앞서도 他項을 論하는 中에 多少 言及된 것이 있으니 參照를 是望한다. 曾子는 顏子와 같이 亞聖之資를 稟得한 것도 아니요 參也魯라고 하듯이 오히려 多少 魯鈍한 便이었던 才能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學問을 一一이 躬行心得 動必反求하여 吾道는 一以貫之를 得聞하게 된 所以이기도 하다. 어쩌면 衆學者의 下學上達에 가장 親切한 功夫를 直接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가 말한 吾日三省吾身은 文字 그대로 忠·信·傳習을 날로 反省하여 참으로 有則改之하고 無則可勉하는 實踐과 證驗을 通하여 磨琢鍊成되었으므로 堅確하고 精密하며 眞正하고 守約하였고 聖人之道를 子思·孟子에게 正傳하였으니 大學의 格致誠正之學과 子思의 存養省察之論이며 孟子의 仁義性善과 養氣盡心之說은 이를 雄辯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反省求身하는 學問之道는 謹慎向上을 生成하나니 그가 大賢이 되어 聖人之道를 眞正하게 後學에 傳해줄 수 있었다는 것은, 盲目的인 信從이라고 할까 記誦訶章을 일삼는다고 할까 限極해야 知之好之에 晝留하고 身心을 通貫到得의 樂之之境에 進深入妙하지 못하는 學問 結局은 爲人之學 小人儒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學問을 버리고, 反求諸身·用心於內하여 마치 嚙飯壓飽로 나의 滋養이 되어 나에게서 獨自的으로 證得默契되는 樂之之學이요 爲己之學이요 君子儒가 되어 師聖·友亞聖의 道를 眞實하게 親得하였기 때문이요 그 原動力은 吾日三省之學에 있었다고 擬信하여 본다. 그가 有疾臨終에 召門弟子하여 “曰啓予足 啓予手 詩云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라 하고, 또 寢疾에도 吾得正而斃焉, 斯已矣라 하여 易簣未安而歿하였다 하니, 孟子所謂 事親若曾子者可矣라고 하는 孝親도 養心을 主하였고 雖死歸正의 朝聞夕死之可를 連想하게 하는 것도 오로지 反省을 土臺로 한 持心身維謹도 用心을 主로 삼은데 있어 上下體用이 相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其他 얼마 안 보이는 曾子說에서일망정 謹慎省察하여 反求心身之學을 힘쓴 意味는 尋見할 수 없지 않다.

以上 聖賢의 省을 回顧하여 보건대 孔子와 顏子는 上品聖人之資라 凡人心腸으로는 理解到得하기가 愈難할 것만 같고 曾子는 反復省察하여 學利困勉之境을 두루 涉躐上下한 歷程인 것 같으니, 聖人과 亞聖人과 大賢과 賢人의 次元之異를 可見이리라. 그러나 學者는 必히 曾子の 學問方法을 遵守하여야 誤道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어쩌면 이 길만이 孔·顏의 高次元의 學問大道에 接近할 수 있을 것이니 於是乎 曾子の 三省之道는 莫貴한 것임을 알만도 하다.

## V. 俗儒의 省

省은 反省을 이르는 것으로 여기서 主說하였고 省察은 勿論이요 存養과의 緊密한 關係에 있는 것임도 이제까지 機會를 隨하여 論해왔다. 그런데도 어려운 것 같이 여겨지고 吾身中에 固有하여 抽拔除去하려고 하여도 不可能한 것임을 몰라서일까 마치 身外之物을 採取使用하는 것인 양 省과 我가 二物이 되는 것은 왜일까? 이에 筆者는 反省이 바로 吾心身의 主人

임을 깨닫게 하는 말로 換言하여 볼까하니 다름 아닌 “생각한다(思維·思考한)”이다. 생각한다는 말의 範圍는 天下事物의 全部 時間空間의 古今東西 内外表裏 本末始終 淺深精粗할 것 없이 참으로 凡有形色貌相과 形而上之道며 心性情之蘊奧며 言語道斷의 至道之妙 등 凡言語形象 등으로 言表될 수 있는 것은 勿論이요 言語로 表象되지 않는 默識心通과 以心傳心之神妙性 따위까지도 包含하여 생각하지 못할 것은 없다. 反省이 비록 自我의 裏面과 判斷과 處物의 得失正否 등을 省察點檢하여 過去를 或是正道 或修正도 或은 補完도 하여 經驗 등으로 正確至當한 新知를 얻어 未來를 創造하고 開拓對應하여 나아가는 思考能力이므로 現在나 未來보다는 過去이고 外在事物보다는 內在心性사에 있는 것이 事實이나 그렇다고 해서 決코 그 廣範圍한 領域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反省이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인데 왜 凡人·俗儒는 反省하지 않는 것일까? 反省을 하면 事物을 判斷處理하는 知識을 얻고 義理를 따라 當然至善之道에 中節歸正할 수 있을 터인데 무슨 理由로 하지 않는 것일까? 反省을 하면 비록 中正을 얻지 못한다 하여도 在我之所當爲의 義理를 다하면 아무런 慊然不直함이 없이 心身内外가 便安함을 얻을 것인데 왜 하지 않는 것일까? 今人이 肉體를 養護하는데 銳敏하면서도 그 肉體를 安穩和平하게 하는 心性을 存養하기를 不知中 等閑하게 하는 것은 그 原因이 어찌 反省하지 않는데 있지 않겠는가. 思則得之하고 不思則失之하며 克念作聖하고 妄念作狂이라 하니 反省만 하면 되는데도 어찌하여 反省하지 않는 것일까? 反省하지 않는 原因은 무엇일까?

첫째는 學問을 하지 않는데 있는 것 같다. 學問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大概是 速斷하고 即決處理한다. 質勝文이어서 일까 愚直하달까 單純한 所致일까? 徐徐히 反覆思維하여 본다거나 意見을 들어볼만한 곳에 가서 解決策을 求한다든가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다음은 타고난 氣質이 強愎急迫하고 自勝固執之癖이 많아서 熱火같이 獨斷할뿐 事物의 內容을 周徧精密하게 觀察하고 處理의 方法이나 結果 따위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物欲에 包網되어 義理니 是非 따위는 全然 생각하지 않는 部類이다. 大體로 이러한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病痛을 懲治하여 그 原因을 剔抉除去하고 反省하게 하는 方法은 如何할까? 治病之方은 또한 病根을 보아 할지니 不學無識에서 오는 것은 學問을 힘쓰면 될 것이고 氣質拘碍는 이를 變化시키는 方法을 講究하여 할 것이고 物欲에 交蔽貪溺된 것은 物欲을 寡無하게 하면 治癒될 것이며 따라서 反省도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말은 理論上으로는 合當하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平生功夫로도 成功을 期約할 수 없고 또한 一般形式의인 方法을 泛說學題한 것에 不過할 뿐 三病三治의 要訣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 要訣을 論究하여 보기에 前行하여 먼저 凡人俗儒의 反省 아닌 反省의 歪曲된 모습을 暫間 紓明하여 보고나서 하기로 하겠다.

反省을 하지 않는 것이 第一 큰 問題라면 反省은 하여도 反省의 本義가 아닌 似而非反省이 그 다음 問題일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似而非反省일까? 첫째는 義理를 찾지 않는 反省이다. 反省은 學問修德을 주로 하여 말하는 것이니 어떤 種類의 事物을 處理하였는지 義理에 合當하게 하였는가. 不合當하였는가 하는 것이지 惡事나 利欲 非理 따위 仁義禮智德行을 害치는 일은 反省의 本義가 아니다. 凡人은 말할 것 없고 學問을 한다고 이름은 하면서도 爲己之學을 하지 않는 俗儒는 格致誠正 克己復禮之學을 修治時習하는 反省을 하지 않고 或은 求官得名 따위를 爲하여 阿諛逢迎하고 猜恨爭鬪하며 害人利己를 爲하여 이렇게 할 것을 저렇게 해서 私欲을 充足하지 못했다고 하고 다음에는 더욱 緻密한 謀計로 如斯히 해야겠다고 하는 따위니 그 識字는 成惡을 爲한 것일 뿐 無識한 것만도 十倍나 못하다. 다음은 自我의 修己治人之學과 이 所學을 發用함에 있어서 事物의 所以然之故와 所當之則은 얼마나 正知하고 眞正하게 判斷하여 處理하였는가? 知過·行過·身過·言過·心過 따위는 없는가. 不貳過不遷怒는 어느 程度나 可能할까? 誠意正直하여 自反而縮한가 心之體用은 寂感之正을

얻었는가? 氣質은 얼마나 變化하여 偏倚함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가? 物慾은 얼마나 除去되었으며 死生岐路에 臨하여 不害他則不我生한대도 能히 舍生取義하고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하겠는가? 義理나 無欲이니 飽食暖衣하고 安居泰平時에는 그야말로 植髮衝冠 泰山喬嶽을 彷彿하게 하나 臨難에 能히 不動心하여 歲寒松柏之操를 固窮不變할 수 있을까? 親親·愛民·利物에 있어 얼마나 不足한가? 人生은 무엇이며 死生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等 無數한 反省資料 必히 하여야 할 反省을 凡人俗儒는 果然 얼마나 하고 있을까? 이러한 眞正한 反省을 하지 않는 俗儒凡學이 하는 似而非反省이란 正히 이와 相反되는 것이 리니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것을 條別로 말하지는 않겠고 다만 한 가지 어찌하여 似而非反省을 하는 것일까에 對하여 한두 가지 정도 말해보겠다. 似而非反省도 어느 意味에서는 안하는 것 보다 猶勝할지도 모르겠지만 反省의 本義에 鑑할 때는 無反省만도 훨씬 非是하지 않을까 한다. 앞서 反省하지 않는 原因中에 不學을 넣었으니 似而非反省을 하는 理由는 不學中에서도 爲己之學을 하지 않고 爲人之學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爲己·爲人之學의 意味를 究明하려는 것이 아니니 多少 本義에 어긋날지도 모르겠으나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 이 문제를 論究하는데 있어 理解하기에 適合할 것이다. 爲己之學은 天理와 내가 하나가 되는 學問이니, 在天之理나 在我之理는 一也니 本來부터 一理가 萬物天人に 分殊各在하고 있을 뿐, 二箇의 相異한 別理가 各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當然히 天理의 本然대로 存在하고 發揮되어 動靜體用하여야 하는 것이나, 吾人은 氣質의 拘碍와 物欲의 交蔽로 因하여 不幸히도 錯知誤認 歪曲偏倚 本然天理에 順行하지 못하고 甚하면 逞氣肆欲 無所忌憚에 이르는 수가 많다. 이는 天理와 내가 一임을 모르고 人爲的으로 二箇分作한 것이니, 爲己之學은 自然順理의 方法으로써 濁駁氣質을 淸粹하게 變化하고 物欲을 除去하여 本然의 一者에 回復하기 爲하여 努力하는 學問이다. 따라서 生知安行의 聖人以外는 雖顏子亞聖之資라도 隨其分數하여 些毫의 不足이 있음을 難免이어든 況其下者乎아. 吾人이 이미 自身에게 不足함이 있음을 眞情으로 알았다면 어찌 그 不足을 이루는 病痛을 治療克去하여 저 本然의 故鄉이요 天人共存의 樂園에 復歸하지 않고야 견딜 수 있으리오. 이 自我의 不足을 反省省察하여 變化氣質 克去物欲의 學問을 爲己之學이라 하니, 그 學問方法은 또한 高遠難行 索隱行怪 等 異常別件物事가 아니고 聖人之道에 到得함을 確約하는 博文約禮 克己復禮 格物致知 誠意心 等 數條에 嚴存하고 있다. 爲人之學이란 爲己之學과는 正反對되는 學問이니 略言하여 自己의 人格을 養成向上하는 氣質變化和 物欲克去에 從事하지 않는 學問을 이른다. 이 學問의 行路는 自身의 不足을 明察反省하여 物欲之私를 克去하고 天理에 回復實現하는 것이 아니므로 畢竟은 有所爲而爲之의 苟且姑息, 自欺欺人, 表裏不同, 內外相乖, 察己暗 察人誤, 不我知 不知人, 傲人長物, 自是人非, 獨善專橫, 模糊理欲, 逃避天理, 陰惡陽善, 無所忌憚, 爲人形役, 爲物驅使, 八方美人, 爲名爲祿, 心無寧日, 奔走妾婦, 阿意逢迎, 口給佞肆, 色仁行違, 居似忠信, 行似廉潔, 似而非, 鄉原賊德 等 一言以蔽之하여 天理를 舍置하고 人欲을 是務하는 背明向暗하고 舍正路而取榛蕪로 돌아가는 것이 되리니 어찌 枚舉에 限이 있으리오. 修己治人을 宗旨로 삼는 孔孟之道는 아니니 그런데도 굳이 儒學이라고 한다면 外儒內異之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으로써 爲己之學者는 反省을 하고 爲人之學者는 眞正한 反省을 하지 않고 似而非反省을 하는 것과 兼하여 反省을 하지 않는 理由를 어느 程度 攄 理解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却說하고 旣言한 대로 三病三治의 要訣을 簡單하게 附尾하여 參考에 供하고자 한다. 反省을 하지 않는 原因을 일러 學問하지 않는 것이라 하고 反省을 한 대도 反省다운 反省을 하지 않고 似而非反省을 하는 것은 爲己之學을 하지 않는 것이 原因이라고 하였으니 爲己之學만 하면 反省도 하고 眞正한 反省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의 論理를 가지고 要約하여 말하면 爲己之學을 하게하는 方法은 무엇일까? 爲己之學을 하게하는 것이 反省을 하게하는 方途인

데 할 것이다. 글썄 爲己之學을 하게하는 方法은 무엇일까? 或 外道와 같이 이것을 하면 極樂世界·天堂에 가고, 하지 않으면 地獄으로 墮落한다고 恐怖心을 주어 誘惑을 해볼까? 아니면 좀더 哲學的이라고 할까 人生은 結局 아무것도 아닌 動物으로써 醉生夢死하는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가, 삶을 當하고 있는 것인가? 저 宇宙萬物은 무엇이며 나와 무슨 關係가 있고 生死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永劫한 無窮을 생각할 때 그 어느 旣가는 孔子도 釋迦도 耶蘇도 有者必無·生者必死를 어이하지 못하고 없어지고야 말 것이 아닌가? 이름은 없어져도 남는 것이 있는가? 차라리 能力만 되면 王侯將相 富貴功名으로 살아 生前한 世上을 마음대로 거드러거리면서 살다가 子孫萬代에 이어주는 것이 가장 賢明하고 最高가 아닐까? 何如간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느냐? 반듯하게 살고 싶지 않느냐고 正當한 論理로 說法을 해볼까? 아마 이 두 가지 方法이 自身을 알고 生을 바로 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라면 各其應分의 效果를 얻을 것이요 萬若에 儒敎도 이러한 方法을 使用한다면 爲己之學을 하게하는 效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이와 같이 衆人心의 弱點이나 好奇心이나 欲求心에 呼訴하여 信徒를 聚合한다든지 同志를 糾合할 수 있을 것이며 俗談에 “닭이千이면 鳳이 난다.”는 말대로 그중에서 또 道人碩學이 輩出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筆者가 爲己之學을 하게하는 方法은 他力에 呼應하는 것이 아니고, 惻隱·羞惡·辭讓·是非의 四端之情을 因하여 本然의 心性을 固有하고 있음을 알고 仁義禮智之性의 存有와 流行에 있어 本然대로 되지 않고 氣質과 物欲에 障蔽遮斷됨을 陰陽動靜·善惡窮通의 自然反射的 作用에 依하여 또는 時空 等 觸感하는 外的인 것을 因하여 그때그때 知覺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다름 아닌 人爲的이 아닌 契機를 얻어서 하게 되는 自然스러운 反省이라는 것이다. 則 反省의 本態는 自己의 內部에서 自然發生하는 것이니, 이를 根本으로 하여 反省을 힘쓰고 擴充해 나아가야 하니 이것이 바로 爲己之學이요 爲己之學을 하는 길이다. 反省은 이와 같이 內在的이요 自然的이요 不可抗力的인 것이 그 本然相이며 爲己之學이란 다름 아닌 이 反省을 通하여 存心養性하는 일이며, 이를 爲한 學問方法이 亦是 熟知하고 있는 格致誠正之學과 克己復禮의 功夫이다. 爲己之學은 反省을 하게 되고 反省을 하지 않는 學問은 爲己之學이 아니니 反省을 하는 것이 爲己之學을 하게하는 根源者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反省을 하지 않는 것은 그 亦是 氣質과 物欲의 妨害로 心性이 本然의 作用을 圓活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나, 그 氣質物欲之累를 退治하는 武器란 또한 바로 反省을 하는데 있을 뿐이다. 反省이 爲己之學을 하는데 있어 가장 根源者요 要樞인 줄은 알지만 그야말로 莫之禦而不爲라 反省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여야 이를 하게할까? 이제까지 神奇한 妙策이나 있는 것 같이 끌어왔으니 무엇인가 말을 하자니 너무나 싱거워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反省의 本體가 自然發生的이요 自主의 自發的이요 內在的 固有的인 것이고 外勢에 依하여 強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거나 注入되거나 他力을 借助하여 하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하여 成功될 性質의 것도 아니므로, 그 方法 또한 自然히 단 한 가지 나에게 있는 것뿐이다. 反省을 하면 할수록 每日每時 遇事觸物할 때마다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왜 하지 않을까? 하게하는 方法은 自身이 勇躍奮發하여 時習하는 以外에는 없다. 下學上達之士는 勇德이 아니면 學問할 수 없으니 論語에 “子曰譬如爲山 未成一簣 止 吾止也 譬如平地 雖覆一簣 進 吾往也.”라 하였으니, 스스로 自覺奮進하여 不已하는 것이나 아니면 怠惰苟安하여 止息하는 것이 모두 나 自身에게 있고 他人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오직 前進하라는 敎訓이 아닐까 한다. 格致誠正 存養省察의 學問을 精進하여 心之體用을 靜虛動直 常得其正이 되도록 하는 것이 反省幾微之發의 良心發動을 齋來하게 하는 것이고, 이 發動한 契機를 그대로 繼接하여 反省하고 그 效果를 十分 醞釀發揮하는 것이 모두 내게 있으니, 어찌 爲己之學과 反省을 하게하는 가장 重要한 根源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우리 凡人俗儒는 무엇보다도 不退轉의 勇氣

를 가지고 人一能之 己十百之 以至於千萬顛 千萬起 기어코 聖人境地를 찾아 到得하고야 말겠다는 誠心實踐을 통하여 反省의 習熟 自然一體化를 成就하여야 할 것이다.

## VI. 省의 功效

이제까지 論究하여 오는 中에서 省이란 어떤 것이며 그것이 爲己之學에 있어서 얼마나 重要하며 어떠한 功效를 寄與하고 있는가 하는 諸般의 內容을 相當히 理解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別段을 設하여 省의 功效를 再言할 必要性은 別로 없지 않을까도 한다. 그래서 어느 程度 功效의 面을 整理하여 보는 것에 不過한 것이 될 것 같다.

省이라고 하면 省察로 알고 省察이다 하면 存養省察의 省察로 理解하는 것이 一般概念이고 또한 當然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省察이라고 單言할 때는 存養省察의 省察을 包括하지만 存省의 省察은 單言省察보다 範圍가 多少 制限되는 感이 不無하니, 왜냐하면 單言省察은 時間的으로는 過去·現在·未來를 모두 包含하지만 存養省察은 過去를 提撕하고 現在省察中인 事物의 未來를 豫想하기는 하지만 主로 現在進行中인 事物을 省察하는 것이며, 單言省察은 空間的으로 心身內外의 省察을 一切包含하지만 存省省察은 心의 動用을 主로 省察하며, 그 內容에 있어서도 單言省察은 心之用上의 存養省察이 行動하는 半徑을 包含함은 勿論 內外事物의 眞狀 등과 甚至於是 目視省察이나 耳目視聽을 接因하여 하는 心의 省察中 思維省察의 意味外에도 耳聽目視가 바로 心聽心視인 單純省察까지 均等包括하고 있으나, 存養省察은 事物來觸하여 心之發用上에 投影現象된 事物이나 來觸事物을 心視心聽하는 省察을 勿論 兼包하지만 그 主로 하는 것은 事物을 處理하는 心用의 狀態며 正邪是非 天理人欲의 消長分岐 등을 點檢豫防是正하는 이룰데면 心을 主로 하는 思維側面의 일이다.

兩箇省察의 意味가 이와 같으니 그러면 反省은 또 어떤 것일까? 省察과는 달리 反省이 別個의 省察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고 省察中의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왜 反省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는 흔히 自身上의 過去事를 反觀省察하는 것을 意味하니 그 하는 일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을 誤判錯行을 하였다거나 하며, 또는 後悔없이 나의 義理를 다하였고 處理도 圓滿하였다거나 하는 것을 冷徹히 回顧批判하여 追補할 것은 追補하고 不足한 것 過誤된 것은 勇敢히 改過遷善하여 不貳過·不遷怒되도록 하고 義理得宜者는 더욱 培養勉進純熟되게 하는 일로 알고 있을 것이다. 反省이 省察과 다른 것은 主로 自身의 過去之事로서 不足한 點을 省察尋覓하는 일이라는 것뿐인가 한다. 다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存省省察이나 單言省察이 反省을 包含한다는 것은 心의 作用範圍上에서 觀察할 때의 일일뿐, 反省하는 事項範圍로써 말하면 例컨대 存養省察을 잘하고 있었나 얼마나 進展이 있는가 하는 것과 같이 도리어 存養省察과 單言省察을 包括한다고도 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過去라는 概念은 甚히 微細한 것으로서 現在進行中의 일도 그것이 어느 時點에서 어느 時點까지를 現在라고 畫定하여 말할 수는 있지만, 嚴密한 意味로는 말하는 동안에도 이미 刹那刹那가 未來·現在·過去로 끊임없이 一連貫으로 流行變遷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다고 해서 비록 一瞬間이라 할지언정 過去·現在·未來가 없다거나 區別하여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勿論 아니다. 그렇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存養省察이 現在를 主로 삼아 하는 것이라 한대도 過去와 未來를 兼할 수밖에 없고 反省이 過去를 主하는 것이라 한대도 現在와 未來의 一連寸前者를 省察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을까 한다. 要컨대 存養省察의 特色인 心의 體用動靜을 主說하는 것과 反省의 特徵인 過去省察을 主로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이는 幾의 內容이 反省을 發起하는 것도 있고 存養省察을 引發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될 것이다.) 通觀한다면 그리고 諸般問題를 徹頭徹尾 根本까지 窮極竭盡한다면 省察하나로 概觀할 수도 있

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本稿에서도 反省을 主言하면서도 省察이나 或은 思維的인 意味를 通用하기도 하였으니 諒察하기를 바란다.

反省의 功效는 孔子와 顏子와 曾子の 省을 論하는 中에 이미 어느 程度 나타나고 있다. 孔子의 聖人됨까지도 反省의 貢獻은 없지 않으니 桓魋가 欲殺孔子하였을 때 桓魋其如予何오 한 것은 自身을 反省하여 天理에 어긋남이 없고 現在 自己가 處應하고 있는 것은 天理時中하여 天我一致하였으니 어찌 저 不知天의 桓魋가 違天害我할 수 있겠는가 한 것이며, 孟子 浩然章에서 引用한 曾子說孔子大勇條의 孔子曰自反而縮 雖千萬 吾往矣와 意味的으로 相通될 것이며, 나아가 孔顏之樂까지도 自反而縮하여 一毫의 雲霧障空도 없이 心事가 如天青日白 渾然天理인데 있지 않을까 하며, 論語의 子貢을 일러 告諸往而知來者라 하고 殷因於夏禮하고 周因於殷禮하니 所損益可知也니 其或繼周者면 雖百世可知也라고 한 것은 모두 過去를 反省하여 未來를 推知하는 方法이니 이는 孔子의 事考作用이 反省을 重用하였음을 알겠다. 反省은 聖人에게도 聖人나름대로 使用되고 있고 그 效果는 聖人을 聖人답게 하는 意味를 可見하지 않겠는가? 反省의 功效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여겨지기도 한다. 顏子は 亞聖이라 聖人에 比하여 微有跡이나 心中에 纔有不善하면 便知便復의 不遠復이나 三月不違仁을 하고 三月之外에 纔違仁則便知便復仁하는 것이나 克己復禮功夫에서 纔非禮則便知便復禮하고 纔有己私則便知便克去하기를 紅爐點雪하듯 하거나, 아무리 形現以前的 心上에서 한 다 하여도 이미 反省을 한 것과 또 그 反省의 痕跡이 聖人の 無跡보다 微有하니 反省의 恩澤을 被함이 보다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曾子は 吾日三省吾身의 三事가 忠과 信과 傳習이니 이는 孔子의 “子曰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라는 實로 爲己君子之學은 如斯히 해야 한다는 敎訓을 遵守成功하는데 至한 것이다. 여기서 重威學固와 友와 改過는 曾子の 傳習의 內容을 意味하는 것이니 曾子가 成功한 것은 적어도 反省이 重要的 位置를 占하고 있었던 것은 否認할 道理가 없을 것 같으니 於是乎 反省의 功效는 그 누구보다도 眞切하다고 하겠다. 子思는 戒懼·慎獨·存養·省察을 일렀으니 反省의 功效는 致中和·位天地·育萬物에 決코 적지 않을 것이다. 孟子는 孟母三遷之敎에 徵하여서나 以直으로 善養浩然之氣며 集義所生이나 知言說이 모두 下學上達 變化氣質 物欲寡無의 功夫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그 樞軸은 直과 義를 主하여 自反而縮에 至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데 있는 것 같으니, 얼마나 反省의 功效를 被하였을까는 그의 저 泰山喬嶽과 秋霜烈日같은 氣象과 正比例하여 推想할 만하지 않을까 한다.

以上 聖賢에 있어서의 反省功效를 概論하였으니 이를 알기에는 이것만으로도 前說과 合看 參究하면 庶幾하지 않을까 생각되나, 이제 좀 더 仔細히 하기 爲하여 功效의 內容을 類別分疏하여 보겠다.

## 1. 反省과 推進力

太極 陰陽 理氣之妙와 萬物의 生成衰滅은 모두가 動靜 消長 進退 闔闢之道 아님이 없으니 形而上의 太極이 있으므로 形而下의 陰陽이 있고 一이 有함에 二가 有하고 陰陽과 動靜과 消長과 進退며 闔闢 등은 相須 相資 相生 相剋 相推 相引 相進 相退하며 互爲體用 互爲輸贏하여 他가 動進하면 我는 靜退하고 我가 動進하면 他는 靜退하는 相關關係에 놓여있다. 一寒一暑 寒暑가 相推하여 歲成焉이니 冬節에 陽氣를 地球의 深層으로 引入吸收하여 翕聚하지 않으면 春來에 發散長養할 陽氣가 없다. 吾人一身上의 一呼一吸하고 動靜進退하며 陰陽消長하는 微妙함이 또한 天地와 相異할 것은 없을 것이다. 繫辭에 “尺蠖之屈 以求信也 龍蛇之蟄 以存身也 精義入神 以致用也 利用安身 以崇德也 過此以往 未知或知也 窮神知化 德之盛也.”라 하였으니 이는 天下의 萬事萬物은 모두 自然스러운 感通往來之理 속의 것 아님이 없음과, 下學上達하는 學問之事도 이와 같아 精義入神은 屈이요 往이며 利用安身은 信이요 來

라, 學者가 이 兩事에 其功力을 極盡히 하면 內外가 交相養하고 互相發用하는 樞機가 自不能已하여 窮神知化의 盛德純熟之境도 忽然自不知之中에 致到됨을 因以推極言之한 것이다. 天地萬物의 動靜進退며 屈伸往來가 이와 같고 人間의 萬事物의 機括도 이와 같이 自不能已하는 機中の 일이니 學問의 修治도 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면 學問에 있어 精義利用은 內外體用의 兼全之學이 될 것이니 反省은 精義入神之事요 內며 體之事이니 往屈에 該當할 것이고 또한 精義入神之學을 더욱 極盡하게 하는 努力이 될 것이며, 利用은 反省으로 얻어진 精義入神之學을 順理施用하여 隨所居而安함을 이룬 것이니 外며 用之事요 來信에 相當할 것이다. 反省의 일을 一體一用으로 보아서는 或 一旦 終了된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動靜消長과 屈伸往來는 互相發用 相爲進退 相感相應하여 莫之爲而爲之하고 莫之致而致之라 孰主張是며 孰使然哉아 我且不知니 鬼神이 何以知之리요 自然之機가 自不能已하나니, 反省은 休息도 모르고 利用上에서도 또 如前히 努力을 하니 利用은 어느덧 利用이 아니고 精義之事가 되어버리지 않는가? 往屈이 아니면 來信하지 못하고 來信이 아니면 往屈하지 못하듯이 反省이 아니면 精義入神하고 利用安身하는 學問이 있을 수 없으니, 於是乎 反省은 造化의 機의 能力을 가진 推進力이라고나 愛稱하여 보면 어떨까? 그리하여 이 推進力이 無限한 努力과 漸進的인 積功으로 習與成性하고 及其也 到此築底하여서는 易所言 窮神知化德之盛也에 到得할 수도 있으리니 下學上達의 要訣이 此道에 不外하는 것임을 悟覺할 수 있지 않을까? 反省의 功效를 寡小評價하기에는 愚知가 미치지 못하겠으니 어찌 이제까지 말한 것이 寡大評價할만한 能力이 있어서 한 것이리오? 明哲先覺은 이를 俯察함이 있을 것이다.

## 2. 反省과 思考力

反省의 契機가 어떠한 由來로 하여 이루어져서 反省을 하게하는 것이건 間에 反省의 直接發動하는 契機는 心の 發動인 幾를 이르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心은 發動할만한 契機를 얻어야 方發하나니 그 纔發하는 動之微를 幾라고 하며 이 幾를 따라 省察하고 思考하는 것이다. 反省도 이 幾를 對象으로 삼아 省察反究하는 것이니, 結局 反省하는 것이란 現在進行中の 일이면 最初의 省察을 받은 것에 對하여 再省察하는 것과 이미 處理된 것이건 안 된 것이건 過去事物에 對하여 幾를 따라 省察하는 것이니, 反省도 亦是 省察하고 思考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反은 過去事物을 回顧反觀하는 省察이요 思考라면 反省을 하는 것이 思考力을 養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存養省察이 思考를 하는 것이나 省察은 말하지 말고 思索思考만을 努力하는 것도 모두 思考力을 養成하는 것이며, 境遇에 따라서는 反省보다 더욱 效果的일 것 같은데, 特別히 反省을 말하는 것은 무슨 理由라도 있어서인가?

大凡 思·思考·思維·思慮니 하는 말은 같은 意味이다. 孔子는 學而不思則罔하고 思而不學則殆라고 하였으니, 學思를 並行하여야 罔殆之病이 없지, 다른 하나를 버리고 學이니 思니 하는 一箇만을 가지고 하면 罔殆하다는 것이니, 思에는 過不及에 따라 好·不好가 있음을 말한 것이 되겠다. 또 季文子의 三思而後行함을 聞하고 孔子는 再斯可矣라고 하였으니 思에는 正·不正이 있음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思無邪라고 하였으니 이는 思가 眞實無妄함을 이룬 것이므로 亦是 思에는 誠·僞가 있음을 이룬 것인가 한다. 또 思慮는 不一하고 雜擾亂蕪할 수도 있고 專一精明할 수도 있다. 洪範에는 “思曰睿 睿作聖.”이라 하여 思의 功이 至極함을 일렀다. 孟子도 思則得之하고 不思則不得이라 하고, 周子도 不思則不能通微라 하였고, 朱子도 蓋此義理는 儘廣大하고 無窮盡하니 不入思慮하면 則何緣會通이리요 하였으니 이는 모두 思의 功用을 讚揚한 말일 것이다. 要컨대 思索이니 思慮니 思考니 하는 것은 心の 心된 所以가 여기에 있다고 하여도 過言이 되지 않을 程度로 莫重한 것으로서 心之官이라고 하는 所以인 것도 같다. 그런데 愚見이 正當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思考는 思考

가出發하는 源泉地盤이 있고 思考의 對象이 되는 幾機가 있다. 그리고 思考의 內容이 健全하고 充實하나 어떠한 하는 問題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을 具體的으로 解明하여 말한다면 思考하는 材料 則對象이 人爲的 造作契機(義務的으로 하는 契機라 하여 人爲的 造作契機라는 말은 아니다. 定時的 定事的으로 하는 反省이라 하여도 材料가 正當純善하고 純粹만 하다면 時空形式 等の 來觸을 因하여 契機는 發하는 것이며 幾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隨時隨事隨感而應하는 契機보다 外形上으로는 非自然的인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에서 發하는 것이 아니고 純粹淸명한 天地本心之體에서 自然的으로 發生하는 至當然 至善無邪하고 至正하게 發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와 反對되는 駁雜濁昏한 地盤에서 發來하는 것이냐 하는 差異가 있고, 따라서 그 反省契機를 因하여 反省하는 對象인 幾가 또한 善惡의 質的差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反省契機가 淸명한 源泉에서만 發하면 過去에 잘못했던 惡事나 過不足의 過失이 材料的意味에서의 惡幾라 하여도 反省하여 이를 除去하고 是正하며 善事는 加勉할 것이므로, 비록 淸明地盤에서 發出하는 것이라 하여도 그 發來하는 事項은 有善有惡하다는 意味와는 다르다. 이 말은 幾에 兩義가 있음을 이르는 것이니, 하나는 反省契機의 意味와 다름이 없는 心之欲動未動之間이니 動之微이니 善惡已分已萌而未形이니 欲善欲惡而善惡未判이니 하는 意味이니 이런 意味의 幾는 眞正한 反省契機와 같은 것이어서 實은 淸明源泉에서 發하는 善幾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제까지 말한 善幾惡幾의 所從來의 差異와 그 發見한 것은 反省의 對象이 되는 것이라는 材料的 意味로 이르는 幾이다. 幾라는 것은 心의 纔發하는 幾微를 이르는 것이 本意이지만 幾之善惡之微는 善惡以前부터 提撕警覺하여 오는 省察의 對象이 또한 되는 것이므로 兩側面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此間論議는 至極히 精妙微密하므로 見聞之知로 理解하기 어려우니 深思體證하여야 할 것이다. 거기다 더욱 罪悚한 것은 迷途彷徨者의 말이라 胡亂蕪辭로 反覆橫豎하여 理解하기 어렵게 하였으니 海諒을 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反省思考하는 것이 그 對象材料에 適合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思考의 本分使命을 다하여 材料가 涵具하고 있는 眞實相態며 眞正意味를 歪曲함이 없이 發揮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問題가 있다는 말이다. 이제까지 말한 것이 思考의 一片鱗에 不過한데도 이렇게 複雜難解한 것이며 그리고 生死를 賭하여 身親入思하지 않으면 理解到得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그러면 反省하는 思考는 무엇이 다른 것 보다 優越하다는 것인가?

첫째, 單言省察이나 存省省察은 心之纔動인 善幾惡幾를 省察하는 것이고 反省省察은 惡幾가 發했을 때는 勿論 惡幾도 省察하지만 原則的으로 또는 當然的으로 大概의 境遇는 善幾만이 發하고 이를 省察思考하는 것이다. 이는 왜 그런가 하면 一般省察의 幾는 天理人欲의 公私가 雜出하는 것이 (聖人은 純善而已지만 衆人은 如斯하다.) 常例이나 反省省察의 幾는 그것이 거의 過誤를 悔恥하거나 契機로 因하여 良心이 回復發出하거나 心自體의 動靜善惡의 窮則變通하는 反射的作用의 妙에 依하거나 하는 境遇에만 眞正한 意味의 反省의 契機가 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兩者의 省察對象의 幾가 相異한 것을 보다 그 根源을 遡推하여 보면 더욱 分명한 理由를 可見하리라고 믿는다. 單言省察이나 存省省察은 大概 現在 來觸한 事物을 判斷하고 處理하는 幾이며 이를 點檢省察하는 心之用이므로 반드시 天理일 수만도 없고 이를 發하는 心之感應의 體가 明鏡止水와 같은 狀態인 것만도 아니다. 그것은 때로는 鑑空衡平한 心之體이기도 하겠지만 眞正하게 圓融無缺하기는 어렵고 大概是 不完全하여 偏倚駁雜한 本體 아닌 體가 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反省心을 發해주는 反省契機며 其所發之幾는 既言한 대로 設使 暫焉之頃이라 하더라도 淸明純粹한 本然心이요 知至意誠 己克禮復된 本體로부터 流露되어 出來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反省省察의 契機와 省察對象이 되는 幾의 純善함이 이와 같은 것은 專혀 純粹淸명한 本然之心體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 萬若 一毫라도 己私之雜이 있다하면 어찌 不貳過·不遷怒·不遠復의 契機요 善幾가 될 수 있겠는가? 周濂溪는 通書에서 不思則不能通微라 하고 또 思者聖功之本이라고 하여 聖功之莫大者를 思라고 斷定하였지만 그 思는 純粹至誠한 思이어야 함을 일러 無思而無不通 爲聖人이라고 하였으며, 朱子는 思考의 功能을 自身の 經驗에 依하여 이르되 只管思量하면 少間에 這正當道理가 自然光明燦爛하여 在心目間이 如指諸掌이라 하였으나, 이러한 思考는 亦是 文集에 이른 대로 心之有思는 乃體之有用이라 所以來藏往 周流貫徹하여 無一物之不該也라고 하였으니, 兩說

이 모두 心之體의 至誠無邪함과 이러한 清明純粹 渾然天理의 體에서 發源한 것이어야 함을 意味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心之本體로부터 發出된 反省契機요 幾이니 反省思考의 本領을 充分히 發揮되도록 하여야 할 터인데, 果然 能히 이 契機 이 善幾를 잃지 말고 反省의 일을 始終如一 훌륭하게 遂成할 수 있을까? 그러면 反省이 어떻게 하여 思考를 眞正하게 發展시키는 것이 될까?

둘째, 大凡 思考는 그 功能이 測量할 수 없이 莫大하여 創作도 新發明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前無後無한 創始의 發明이라 하여도 무엇인가 對象할만한 事物에 依據하여야 可能하니 蕩蕩한 空無之地에서 單獨의 思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이는 思考한다는 自體가 對象이 없이는 思考가 發할 수 없는 것임만 보아도 充分히 認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新發明外의 어떠한 發明도 事實은 보다 從前에 있었던 것을 土臺로 하여 그 위에서 研究發展시킨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省察도 對象이 있어야 하고 그 對象은 過去·現在·未來와 內外物我 宇宙間에 存在하는 一切事物 어느 것이나 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如何한 發明創案도 從前 것을 依據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省察思考도 모든 對象中에서 過去事物을 對象으로 삼아서 하는 反省省察만큼 思考를 成功시켜 줄 수 있는 確率은 없다. 이것이 바로 反省思考만이 가지는 特長이니 이제 그 理由를 簡單하게 말해 보겠다.

1) 主로 自己가 經驗處理한 일이며 그중에서도 不足하게 여겨졌다거나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部分이 反省思考의 對象으로 幾發할 것이므로, 是非·黑白·善惡·正邪·得失·過不足 등이 明白하게 드러날 것이며, 따라서 思考對象을 選擇하는데 彷徨을 한다든가, 思考의 展開過程이 生疎하여 難澁하다든가 하는 일이 없고, 治療方法을 찾아 改善하기가 比較的 容易할 것이다.

2) 鑑空衡平한 心之本體에서 發出한 善幾를 反省思考하는 것이므로 勿論 持敬操存을 잘해서 心之體用이 常得其正되도록 해야 하나, 本來 反省思考之心은 心之用의 得正된 것이므로 喜悅과 滿足의 狀況下에서 思考하게 될 것이니, 다른 省察思考보다는 四有所나 三不在의 疾病 따위가 橫發妨害한다거나 己私의 拘碍 따위가 있어 敬以操之와 思考의 繼續을 遮蔽壅遏하는 일이 아주 적을 것이다. 이 마음이 繼續되는 限 思考力이 深廣精密하여 그 內容이 또한 充實할 것은 豫期할 수 있을 것 같다.

3) 反省思考는 過去를 基盤으로 하고 現在와 未來를 追求하는 것이므로 過去가 없는 省察思考에 比하여 三界連貫을 이루어 論理의 整合이라든가 辯證的인데 있어 보다 優越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한다. 子貢은 孔子의 너는 顏回와 比較하여 누가 優越하다고 생각하느냐에 對하여 여쭙기를 “賜也何敢望回 回也聞一以知十 賜也聞一以知二.” 하노이다 하였고, 또 孔子는 일찍이 “賜也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은어 한 일이 있다. 聞一而知二是 告往知來와 같은 것으로 推測하여 知하는 水準으로써 因此而識彼를 이르는 것이고, 顏子の 聞一而知十은 亞聖之資에 博文約禮의 學力을 兼한 것으로서 即始而見終하는 것이다. 朱子는 兩人을 比較하면 顏子の 明睿所照는 明鏡에 物이 來投하면 그 全貌를 모두 照燭하는 것과 같고 子貢의 推測而知는 一箇의 些子火光을 가지고 物을 逐照하여 가서 推尋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 위의 聖人은 生知安行이라 推廣을 要하지 않고 自然히 全體를 昭明하고 있다고 하겠으니 前言한 通書의 無思而無不通의 聖人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한 反省思考는 下學上達의 學問之士로서 聞一而知二하는 子貢의 推測而知하는 程度에도 많이 不及하는 데서 부터 始作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렇게 自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反省思考의 契機와 善幾는 聖功의 地盤的 動機가 되는데 決코 不足할 것이 없을 것이며 思曰睿睿作聖이라 하고 思則能通微를 일렀으니 恒常 反省함으로써 心의 體用得正을 이루는 存養省察 格致誠正 克己功夫를 더욱 眞切하게 하고 反省契機를 推廣思考又思考하여 나아가면 子貢은 말고 顏子나 孔子까지도 바라보지 못할 것이 없으리니 이 어찌 反省이 思考力을 擴充培養하는 것이

되지 않으리요. 뿐만 아니라 士는 希賢하고 賢은 希聖한다는 말이나 有爲者亦若是라는 말이 한낱 聖人之學을 修治하는데 一十百千 死而後已하는 立志와 努力만을 自信自誓하여 強調하는 것이 되어 漠然한 感마저 없지 않았으나, 所見하는 대로 反省思考야 말로 下學上達로써 聖賢之域에 趣入하는데 보다 實際的이고 具體的인 根據와 方法을 우리에게 참으로 其如指諸掌해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도 한다.

### 3. 反省과 主體性

人間的 主體性이니 教育의 主體性이니 學問의 主體性이니 하며 나아가서는 어느 機關·團體·國家에 이르기까지 主體性을 主張하는 것을 본다. 主體性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主體的으로 하는 것이며 그 根據는 어떠한가에 對해서는 사람에게 따라 또는 機關에 따라 意味하는 것이 相互間에 多少 差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原則的인 根據는 나라는 一箇人에 찾아야 하고 이것은 어떤 意味의 主體性을 이르든지 基本으로 類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主體性이란 무엇을 根據로 삼아 이르는 것인가? 나는 一言以蔽之하여 天所賦人所受之理니 바로 仁義禮智之性이라고 한다. 人間은 이 世上에 誕生됨으로부터 一箇의 獨立體요 그것만으로써 完全한 生物體로써 棲息하다가 또한 不足함도 없이 獨自的으로 東出西沒 始東終西하는 日月과 같이 그러나 東도 아니요 西도 아닌 始出前 終沒後의 無名無方한 世界로 歸終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形體上의 말이니 形體도 아닌 理로써 말한다면 그 어느 무엇이 우리의 主體性을 加減할 수 있겠는가. 理는 東西人 古今人 다를 것이 없고 在天之理 在人之理가 一理이며 聖凡之性이 一元이다. 이 理가 우리 主體性의 根據이니 이것을 本然대로 存立하고 天然대로 發揚하는 敎學이 主體的敎學이요 이 敎學을 通하여 本然대로 이루어진 人格이 다름 아닌 人間의 主體性이다. 人間의 主體性은 人間이 天도 되고 天이 人間도 되는 天人合一 天人一致 天卽我我卽天인 固有者인 것이다. 이와 같이 本來 完全한 固有者인 主體性이지만 形氣를 具有하고 있는 人間이기에 이를 蔽障阻礙하는 妨害者의 側面이 또한 없지 않으니, 於是乎 이 妨害物을 修治하는 作業이 需要되니 바로 前言한 主體的敎育을 이르는 말이다.

主體的敎育과 學問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왜 하는 것인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仁義禮智之性을 本然대로 保存하고 闡顯하는 敎育이니 學問도 이에 따라 해야 할 것이다. 主體性이 무엇인가 眞正하게 理解하여 確固不動하게 存立하고 主體가 本來의 모습 그대로 自然스럽게 流行하게 하도록 하는 敎育이며 學問이다. 이러한 學問을 우리는 爲己之學이라 하니 天命之心性을 妨害하는 濁駁氣質을 淸粹하게 變化하고 己私物欲을 克去하여 天理가 回復流露하게 하는 學問이니, 그 方法이란 聖人이 提示하신 格物·致知·誠意·正心, 博文約禮·克己復禮 功夫이다. 儒學을 한다고 하여도 心性之學을 修功하여 自身의 修養을 漸積하는 중에 自己人格의 完成을 爲하지 않는 學問은 爲人之學이니 嚴密한 意味로는 儒學이 아닌 다른 漢字學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말을 反約하면 主體的 學問은 爲己之學을 이르고 爲己之學은 格·致·誠·正, 博約克復을 功夫하는 學問이라고 하겠다. 이 功夫를 다시 約言하면 知·行을 分析한 것이니 分析된 것을 知·行으로 말하는 것은 無妨할 것 같다. 要컨대 爲己之學이란 心性을 知하고 行하는 學問이라고 換言하여 볼만하지 않을까 한다. 爲己知行之學은 知行을 相互須資的으로 修治하는 것은 他學問과 相異한 것이 外觀上으로는 別般 없으나, 仔細히 裏面을 洞察하면 異同이 決코 적지만은 않다. 他學問은 비록 哲學이니 宗教라 하더라도 大概는 形而下的 學問이므로 거기에는 매우 우리가 이르는 形而上學과 近似한 것이 있지만 實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知識的인 知識 感覺的인 知識 또는 深奧한 玄學的 言語道斷의 自證的 知識을 말한다 하여도 氣上에 理가 있는 것을 實體認理得하지 못하는 學問은 말은 同一

한 知行相須를 이르지만 크게 相異하다. 爲己之學은 形而上之理가 主가 되고 形而下之氣는 客이 되어 主客이 相須相證하여 修行되는 것이니 어찌 氣一邊世界에서만 하는 科學的 物理的方法和 같다고 하겠는가. 더 以上の 말은 여기서 論及할 餘裕가 없으므로 이만하고 爲己之學을 하게하는 推進因子는 무엇이며 反省이 어찌하여 主體的 學問이 되는가에 對하여서만 若干 論究하여 보겠다.

爲己知行之學을 修治經驗하는 中에 이 學問을 여러 가지 困難한 事情으로 因하여 拋棄하지 않으면 안 될 狀況을 屢次 當하면서도 버릴래야 버리지 못하고 老年에 至하도록 놓지 못하는 것은 都大體 무엇이 그렇게 하였을까? 有人問我하면 筆者는 卽答하기를 不足을 느끼는 連續生活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무나 下品氣質을 天地의 游氣로써 받은 탓인지 言과 行, 知와 行, 德과 言行, 心과 知行은 恒常 牴牾不合하여 改悛과 決心은 文字 그대로 作心三日이요, 不貳過·不遷怒는 제치고 朝改暮過 宿怒無日이라 綽名을 自附하여 “신개꼬리(白狗尾는 三年을 泥土中에 埋沒해 두어도 取出하여 洗滌하면 도로 흰 채 풀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다소 철이 드는 듯도 하나 아직도 遼遠하니 匪歎窮廬 日慕途窮이다. 아마도 高明賢士는 이를 듣고 失笑하기를 難禁일 것이고 世間の 富貴豪傑은 冷笑하여 輕侮할 것이니, 어디 如我愚蒙이 있어서 나의 不足生涯를 信從하리오? 그러나 信聽할 사람이야 有也無也이거나 主張이 事理에 當耶不當耶 그것은 내가 알 수도 없고 알 바도 아니다. 그저 經歷하여온 實事를 말하는 것뿐이다. 知와 行, 知行과 心은 恒常 서로 滿足하지 못하여 知의 不足은 行에서 尋求하고 行의 不足은 知에서 尋覓하며 서로의 不足을 相對方에게 알리고 서로의 補完策을 講究하여 더욱 倍前의 努力을 한다. 不足은 補充을 要求하고 새로운 實踐은 또다시 새로운 不足을 生하는 이를 테면 不足과 補充이 마치 兩箇의 推進子가 서로 進退不已하여 終息할 줄을 모르듯이 한다. 心之體用도 한 가지이니 體가 靜虛하지 못하면 用이 動直하지 못하고 用이 處事中節하지 못하면 心體가 不安하여 未發之中은 생각도 못하고 心中이 이미 不正하면 用이 失中하지 않을 수 없으니 體用이 相互求正하여 또한 止息할 줄 모르고 서로의 不足을 서로 알고 서로 修治를 要求하고 서로를 救援하여 주는 亦是 不足과 補充의 無限한 繼續進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勝負도 없는 鬪爭의 連續이라고 할 만한 일도 意識的으로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驅使되는 것인지 스스로 알지도 못하면서 달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決코 이것을 해야 하겠다거나 하라는 命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닌 줄 안다. 心性을 修治하는 爲己之學은 不足을 아는 것이 바로 學問을 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推進力인 것이다. 富貴名譽를 爲하는 學問이 어찌 이 學問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爲己心性之學은 不足을 알게 되고 이를 補充하고자 하는 兩者의 相互推進不已하는 學問임을 理解하기에 이르렀다고 하겠는데, 다음은 이러한 不足을 아는 일은 어떻게 하여 顯見하는가를 생각해볼 必要가 있지 않을까 한다.

不足을 表現하여 주는 일이 다름 아닌 바로 反省인 것이다. 不足한 생각이 一毫라도 있으면 反省이 自然히 나오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不足을 感覺하는 그것이 바로 反省이라고 名稱되는 것이니 反省이 人爲的으로 내가 해야겠다 하여 하는 것이 아닌 것이 그 本來의 形態임을 알겠다. 그러나 이를 이미 名稱된 反省으로부터 보면 아무리 自然히 이루어지는 反省이라 하여도 이를 換易하여 反省이 不足을 알게 하여 나타내 준다고도 하겠다. 不足을 感知함으로부터 나타난 反省은 이제 不足하다고 나타난 過去事物의 一切를 反觀하여 또한 不足과 補充의 일이 實行되는 것이니, 앞서의 爲己之學에서 修治하는 知行과 心之體用의 不足과 補充의 相推連續은 또한 다름이 아닌 反省의 일인 것이다. 反省이 아니면 不足과 補充의 相推原理는 이루어질 道理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 反省이 어떻게 主體的인 學問이 된다는 것인가를 論究하여 보겠다. 앞서 主體的인 教育과 學問 또는 人格의 根據는 天人一元의 理요 在人則性의 性善之善이며 人이 天命을

稟受하여 性이 되었다는 意味의 말로 詩의 天生烝民하시니 有物有則이나 中庸의 天命之謂性 등이 있으나, 이는 天地間에 生息하는 物임을 이르는 것이지 天理와 人理가 相異한 것이거나 授受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一元的이요 同地位의 것이기 때문에 主體的인 人格을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이 또한 天人一致를 이르는 所以임을 意味한다고 일렀다. 그러나 人間의 主體性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證明을 하며 이 主體性의 發見은 어떠한 方法으로 이루어지며 이 主體性의 本體인 性과 그 發見을 教育하고 學問하는 心性體用之學은 어떻게 하여 그것이 主體的인 學問이 되느냐 하는 問題가 後續的으로 解明되어야 할 것이다. 人間의 主體는 性이니 教育도 學問도 이 性을 本據로 삼아 試圖되는 것이지 根本이 없는 것은 有라고 하여 造作主體를 세우고 造作教育을 하는 것은 아니니 이는 主體的教育도 學問도 아니다. 主體的 教育이란 所謂 藹然四端이 隨感而現하는 仁義禮智之性을 主體로 세우고 以人治人하다가 改而止하는 말하자면 主體性을 回復되게 하는 教育이지 決코 主體의 本然에 一毫의 人爲的 加減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主體的 學問이란 主體的 教育의 本旨에 따라 맞게 하는 功夫요 學問이니, 두말할 것도 없이 本然의 心性을 回復하는 格物·致知·誠意·正心·博文約禮·克己復禮를 힘쓰는 바로 爲己之學을 이른다. 爲己之學을 要約하여 말하면 存養省察의 心之體用功夫로 收斂될 수 있을 것이니 畢竟은 心性情體用動靜을 말하는 學問이라고 하겠다. 이를 다시 演繹하여 말하면 主體的 學問이란 첫째로 主體인 本然의 心性情을 主로 하여 回復하는 功夫이고 둘째로 性發爲情과 心統性情이 心性이 主體가 되어 主體的으로 하는 것이지 心性의 上位에 또 다른 主體가 있어 이를 使令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功夫이니 이것이 바로 存養省察功夫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存養省察을 功夫하는 것이 主體的인 學問임이 밝혀졌으면 充分할 터인데 다시 反省이 主體的 學問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여서인가?

大概 外物이 아직 來觸하지 않았을 때는 靜時未發인 主體를 存養하는 時節이요 外物이 來觸既感하면 主體가 本然대로 發露流行되도록 하는 動時已發의 省察時節이다. 이때 主體를 存養省察하는 功夫이니 이는 主體的 學問이요 存養省察의 일이 主體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主體的인 學問이요 外物이 來觸하여 心性이 發動爲情함에 있어 그것이 惻隱羞惡等 四端이든 喜怒等 七情이든 其發其情은 主體의 것이며 主體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또한 主體的인 學問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러면 反省은 이 存省省察의 主體的學問이 되는 것과 무엇이 有異한가? 存養省察의 省察은 四端이든 七情이든 그것이 發할 때는 大概 外物의 來觸을 받아 感應한 幾니 端이니 하는 것을 對象으로 삼는다. 그러나 反省省察은 存養을 體로 하여 發하는 것은 같으나 이는 外物來觸에 依하는 것이 아니고 心中內의 自體作用을 因하여 回想繚覺的으로 發하는 幾를 對象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存省省察의 幾는 凡人的 境遇 善幾도 있고 惡幾도 있겠으나, 反省省察의 對象이 되는 幾는 大概 不足을 反觀醒覺하는 心之所發이므로 善幾뿐이다. 善惡幾를 모두 對象으로 삼는 存省省察은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의 發과 天理의 作用이나 人欲의 作用이 있지만, 反省省察은 本然之心의 天理作用에 因하는 것이므로 對象內容에 有善有惡한 것과는 關係없이 本然之性 即主體之本善者만이 發見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兩者의 差異를 勘案하여볼 때, 存省省察보다 反省省察은 內的 獨自的이라는 것과, 前者는 善惡幾가 皆有하므로 天理人欲이며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이 皆發出來하는 것이나 後者는 보다 天理요 本然之性이요 善幾만이라는 것은 反省省察이 보다 主體的 學問이 되지 않을까 한다.

要컨대 反省省察이 爲己之學인 主體的學問을 하는데 亦是 牽引車의 役割의 本領을 占하리라고 생각된다.

#### 4. 反省과 恕

첫째, 反省과 恕는 類型은 相擬된다.

反省은 過去의 所經事에 對하여 契機를 따라 回顧內觀하고 省察思考하여 覺醒된 不足點은 是正補充하고 善한 것은 더욱 加勉補充하여 仁義禮智之性을 涵養하고 明鏡止水如한 心體가 持存되도록 爲己之學의 功夫를 힘쓴다. 過去를 檢討하여 是正補充하는 일은 格致誠正 博約克復의 學問을 勉勵하여 人格向上을 爲하는 일이니, 이는 다음의 應事接物에는 過去를 鑑徵하여 過失을 再犯하지 않고 不足을 補充하고 善을 더욱 鍊磨熟達해서 最善을 다하고자 하는 底力의 養成이요 地盤의 周徧圓滿을 期하려는 構築工事이다. 反省이란 이와 같이 地盤을 正善確固하게 하는 것이라는 意味를 일렀고 여기서 不足한 것은 補充施行하게 되며 施行後는 또다시 不足을 發露하게 되어 結局 不足과 補充의 無限한 旅行임을 經驗事로써 含羞忍說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도 認知할 수 있듯이 反省이란 過去를 反省하여 不足을 補充하고 剩餘를 刪除하며 去惡養善하는 일 則地盤完備를 하는 것이나, 過去事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存心養性하여 純熟된 資材를 가지고 이를 推廣하며 適用하는 등 將來之事를 天理대로 處理하기 爲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反省이라는 말의 自體속에는 推廣將來를 直接 말한 것은 없으니, 이것이 다음에 말할 忠字는 말하지 않고 恕字만을 말한 것과 外形이 交叉的으로 類似하지 않을까 한다.

恕는 論語에 “子貢問曰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卽一言을 가지고 終平生토록 守行하여 從事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있겠습니까? “子曰其恕乎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고 孔子는 일러 주었다. 이 恕字는 推己及物한다는 말이니 孔子의 所言대로 自己에게 施하여 欲하지 않는 것은 人에게 施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을 推擴하면 自身이 欲하는 것은 人도 欲할 것임을 알아 得欲하도록 施한다든지 大學의 絮矩之道나 中庸의 四未能을 알아서 行하는 것 등은 推恕의 일이라고 하겠다. 다만 恕는 自身の 中心에 內在하고 있는 것을 他人物에게 推及하는 意味이지 容恕한다는 뜻은 여기서는 없다. 그런데 이것만 하여도 我所固有인 仁義禮智之性을 人에게 推行하는 것임을 알겠지만, 孔子는 亦是 子貢의 問을 因하여 仁을 行하는 方法으로써 “能近取譬可謂仁之方也.”라 하여 恕의 推己及人之義와 이것이 仁을 行하고 仁에 至하는 術임을 일렀다. 여기서 恕는 仁을 行하는 仁之方術임을 알겠으니 爲己儒學에 있어 修行要目으로는 이보다 重大한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恕는 行하는 用上으로 말한 것이니 體가 없으면 用은 行하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恕字를 單言할 때는 體를 그 裏面에 含有하고 있는 것이다. 이 體字가 바로 忠字이니 夫子之道는 忠恕而已라고 한 曾子說에 徵하여 알 수가 있다. 忠이 體인데도 이를 略하고 恕인 用만을 말한 것은 그 意味를 따지기 以前에 反省인 體만을 이르고 이 體를 推廣하는 用은 말하지 않은 것과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러면 反省과 恕는 類型만 近似할뿐 보다 意味上의 關係는 없을까?

둘째, 反省과 恕의 意味關係

1) 反省과 恕는 모두 自己가 生産하여 自己가 行用하는 것이므로 終身用之하여도 窮盡함이 없다. 앞서 反省과 省察을 말하는 데서 省察은 外物의 來觸을 받아서 發動한 幾를 對象으로 하여 하는 것이나, 反省은 自身內에서의 獨自的인 感應에 依하여 發端한 善幾를 對象으로 삼아 省察思考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不足과 補充의 止息함이 없는 向上的 連續活動임을 일렀다. 恕는 體인 忠을 推用하는 것이므로 忠하는 裏面資材의 生産이 固有한 仁義禮智之性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亦是 無窮한 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反省이 用을 兼하고 恕가 忠을 包在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兩者가 모두 自體生産되어 無盡하는 것임을 疑心할 것은 全然 없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反省이 이미 本然의 清明良心作用임을 일러 善幾를 省察하는 것이라고 하였듯이 恕도 忠을 推用하는 것이니 만큼 또는 恕한다는 그 自體가 이미 他人物을 생각하여 알아주는 마음이니 善이 되지 않을 수 없겠으니 여기서

도 共通點을 可見하지 않을까 한다.

2) 忠은 反省한 것으로 資料를 삼는다.

中庸에 引用된 孔子의 言中에 “忠恕違道不遠，施諸己而不願，亦勿施於人.”이라고 있다. 忠恕란 盡己之心爲忠이요 推己及人爲恕라고 朱子는 註釋하고 있다. 自己의 마음을 十分之十 盡得하는 것이 忠이니 이러한 마음으로 誠心을 다할 때는 心中에 所藏된 것 例컨대 知識·經驗·謀度·善 등 一言으로 하여 能力을 있는 대로 남김없이 奉盡하는 것이니, 特別히 盡己하는 資料를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包含되어질 것은 分明하므로 새삼스레 表出言之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心이란 本來 虛靈한 能을 이르는 것으로 性인 所가 아니면 무엇을 持載할 것이 없어서 出入進退를 할 道理가 없다. 그래서 忠恕兩字도 盡己한다 推己한다는 意味로 보아서는 아무리 所가 될 資料를 裏面에 包含시킨 것이라 한 대도 亦是 己의 무엇을 盡하고 推하는 것인가 하여 能과 所 兩面으로 말하는 것이 不當하지는 않을 것이다. 反省도 心이 하는 能事이지 그 自體가 所는 아니다. 그러나 反省을 하여 얻어진 知識과 經驗이며 善이나 良心 등과 나아가서는 格致誠正·博約克復의 功夫에서 얻어진 것이 反省으로 照明되어지면서 盡己之謂忠의 忠己之內容物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는 存養省察의 省察에 있어서 省察이 靜에서 動으로 流行進入하는 過接關頭에 處하여 提撕警覺하는 일을 除하고서는 欲動未動之間이요 纔發이며 動之微인 幾를 省察하여 四有所·三不在 등의 病이 없도록 하며 있으면 除去하고 惡幾가 出見하였으면 이를 克懲하여 行하지 못하고 善幾가 發하고 行하게 하는 것이 그 職務일 것이다. 그런데 이 省察은 存養에 이어 動而省察하여 心의 用行이 不正한 데로 가지 않고 中節하게 하는 동안 反覆省察의 境遇가 없지 못하므로 須臾之前事도 過去를 反省하는 것이 되며, 이때의 反省이란 事實上 省察의 어느 部分인가를 遂行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앞서 既言한 대로 反省은 須臾之前의 일을 생각한다거나 살핀다거나 하여 行하는 意味로 보면 될 것이다. 이에 이르러 反省으로 照明된 資料를 바탕으로 하여 忠恕가 行하여지고 있는 것임을 더욱 確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反省이 아니면 資料없는 忠恕는 行하여 질 수 없으므로 反省이 忠恕를 推進하는 것이 된다고 하겠으니 例컨대 施諸己而不願을 亦勿施於人이라고 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이니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推行하기 前에 나를 反省하여 確實히 그러함을 確認하여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是非可否 따위에 이르러서도 이를 推己及人할 때는 반드시 反省을 하여야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忠의 資料로써 反省에서 얻어진 것이 重要하게 評價되어야 할 것은 存省省察 속의 反省도 그렇지만 보다 오래된 過去를 良心의 翻覺 등으로 反省된 것은 原則적으로 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忠恕는 反省을 發揚하여 준다.

忠恕만을 말하면 忠恕하는 일속에는 反省하는 일이 行해지고 있다고 하겠고 反省만을 말하고 忠恕를 말하지 않으면 反省하는 속에 忠恕가 들어있다고도 할 만하지만, 兩者의 關係로써 말하면 反省이 忠恕의 資料가 되듯이 忠恕는 反省한 것을 眞正하게 發揚하여 준다. 忠은 己之心을 盡竭하는 속에 反省을 眞正하게 하여주고 反省은 그것이 心之本體의 清明으로부터 發하여 活動하는 것이므로 忠을 盡己하면 天理가 나오도록 하여준다. 反省한 것이 忠의 資料가 되는 以上 비록 反省의 用이 반드시 推己及人은 아니지만 迂回的인 用이 된다고 하겠으니 忠恕가 反省을 發揚하여 주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튼 反省이 良心의 作用임을 알면 忠恕의 本然之心을 盡竭하는 것과 本然天理의 心性之源에서 相會할 것이니 相爲須資하고 互藏其義하게 될 것이다.

以上으로써 反省의 功效를 終結하겠으나 이 以外에도 人間社會의 一切事가 修身이 爲本이므로 個人에 있어서나 國家社會 등 어떤 團體에 있어서도 自我의 眞正至善한 基本을 定立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기 爲하여서는 反省은 絶對적으로 必要할 것임은 自明한 일일까 한다.

그러므로 政治·經濟·國防·外交 등 어느 것이든 知行的 일이면 反省이 寄與하는 功績이란 넓고 精深하여 一一이 다할 수 없을 程度이다.

끝으로 이제까지 論한 本稿를 回顧하여 봄에 頭序도 없고 條理도 蕪雜하여 마음에 悚懼無已하다. 다만 反省을 題目으로 삼은 當初의 생각은 儒學은 本來 爲己之學을 이르는 것이지 爲人之學은 이 學問이 아니라는 것과 爲己之學을 하는 데는 反省만큼 重要的 것은 없지 않은가 하여 이를 究明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學問이 膚淺하고 德業이 粗疎한 탓으로 所期의 目的을 半分도 達하지 못한 所憾이 不少하다. 그래서 끝으로 反省과 不反省의 對照表를 附記하여 參考에 供한다. 或 賢明之士가 있어 留意할 만하다고 하면 筆者의 拙稿를 契機로 삼아 揉曲質正하는 明教가 있기를 懇切히 是望한다.

### 附記

<反省>	<不反省>
仁義禮智	不仁不義不禮不智
誠直	不誠不直
忠厚	不忠不厚
公理順天	私欲逆命
善良廣大心	邪惡褊狹心
中節	不中節
孝弟愛人	不孝不弟害人
責己知足	責人怨尤
信任	背信
爲己君子	爲人小人
學德高尚	人格卑陋
改過遷善	不知過自是獨善
知行遠深至正	知行近淺巧邪
忠臣立命	逆賊詭辯
眞實謙讓	僞詐驕慢
恭敬有節	不遜無節
主體卓立	事大諛佞
正誼明道	謀利計功
文明人	野蠻人
堯舜之道	桀紂之暴
民主興國	獨裁亡國
平和	好戰
勝	敗
知己知人	不自知不知人
精密	粗率
奉仕	利己
不偏不倚	鄉原德賊
純粹本然	似而非
成人之美遏惡揚善	戕折人善陷人阱塹
身泰神樂	忙踏貪慾
知生知死	醉生夢死
生死有意味	生死無價值

끝